

세계시민교육, 학교와 만나다

선생님들의 세계시민교육 이야기 나눔

세계시민교육, 학교와 만나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역음



나와 너의 연대 속에 우리의 공존을 고민하는

“세계시민교육, 학교와 만나다” (부제: 선생님들의 세계시민교육 이야기 나눔)는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학교 선생님들의 현장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세계시민교육은 2012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글로벌 교육우선구상(GEFI: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s)’을 통해 글로벌 교육목표 중 하나로 ‘세계 시민의식 함양’을 제시한 것을 계기로 2030년까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노력하여 달성해야 할 글로벌 교육 목표이자 개발 목표가 되었습니다.

보다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목적을 둔 세계시민교육은 우리 학생들이 지구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연대감을 바탕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다양성 존중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며,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를 실천할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지속 가능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지역과 세계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바람직한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장려합니다.

세계시민교육은 선생님들에게 아직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계’에 대한 교육이며, 먼 나라의, 혹은 국제적이고 거창한 교육이어야만 할 것 같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경험과 생각을 공유해주신 열한 명의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은 않다고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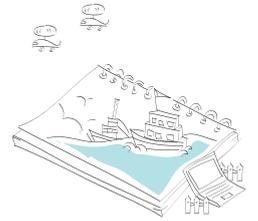
이 책에 실린 선생님들은 세계시민교육은 ‘나’로부터, 내 주변의 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해 ‘우리’로 확대되는 것이며, ‘나’와 ‘너’의 연대 속에 우리의 공존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평화, 인권, 다양성 존중, 지속 가능한 발전 등에 관하여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학생들과 수평적 관계를 맺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밖의 세계를 보는 것뿐 아니라 우리 안의 세계, 우리 안의 다양성을 보고 이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



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위해 참여하고, 나아가 우리 이웃 나라들과 지구 반대편의 이웃 시민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이 직면한 문제에 공감하며, 내가 있는 자리에서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골의 작은 초등학교에서, 도심지의 학교에서, 또 입시로 바쁜 고등학교에서, 각기 다른 환경과 연령의 아이들과 매일매일을 함께 하는 선생님들에게 세계시민교육은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요? 이 물음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로 활동하고 계신 열한 분의 선생님들을 통해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세계시민교육, 다소 낯설고 새롭게 느껴지신다면, 혹은 현장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의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선생님들께서 나누어주신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학교에서의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시면 어떻



까요?

이 책에 실린 동료 교사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경험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이 선생님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친근하게,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길 희망합니다.

2016년 1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원장 직무대행 김종훈



004 여는 글

012 수평적 관계 맺음으로 시작하는 세계시민교육

— 김동혁(광주 문정여고)

034 작은 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 실천하기

— 박병남(충북 영동초등학교)



050 배움으로 행동하기, 행동으로 배우기

— 임영아(울산 강남고등학교)

066 아이들의 시선에서 사회적 문제 바라보기

— 이흥순(인천 청일초등학교)

082 지구인과 소통하며 살아가기

— 박범철(서울 경문고등학교)



104 제주에서 세계시민을 만나다

— 한상희(제주 서귀중앙여자중학교)

126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열어나가는 세계시민교육

— 김민경(인천 청량초등학교)

144 스스로, 천천히, 하나의 변화로 시작하기: '촛불하나' 이야기

— 최재화(경기 신천고등학교)

160 세계시민교육, 아이들과 눈맞춰 함께 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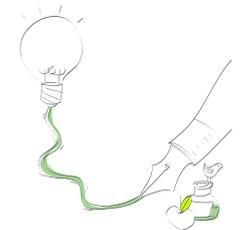
— 김양모(안동 동부초등학교)

172 미래로 가는 길, 선생님과 함께 걷는 세계시민교육

— 정애경(서울 국제고등학교)

194 세계시민교육이란 일상에서 가치 찾기

— 조성준(대전 복수고등학교)



세계시민교육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이 책을 펴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유네스코 회원국과 함께 국제이해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을 증진·발전시키기 위해 유네스코 본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협정으로 설립된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구입니다.

www.unescoapceiu.org

이 책 『세계시민교육, 학교와 만나다』는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인터뷰 내용을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 정리·편집하여 출판한 자료입니다.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는 세계시민교육을 국내에 효과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유네스코 아태교육원과 함께 2015년부터 실시해 온 정책이며, 중앙 및 시·도선도교사로 구성된 선생님들은 학교와 지역에서 세계시민교육의 연구와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개인과 공동체, 국가들은 복잡한 상호의존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삶은 개인이 속한 지역 공동체와 국가 뿐 아니라 지구촌과 연계되어 있으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환경파괴, 빈곤, 갈등과 분쟁 등의 인류 공동의 문제들은 개별 국가가 아닌 전지구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은 세계적 문제들을 사회/정치/문화/경제 및 환경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출발하며, 교육의 역할은 학습자들이 지식을 습득하는 것 뿐 아니라 현재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현상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다름과 다양성을 존중하며, 책임감 있는 행동을 통해 지구촌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하는데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세계시민교육은 인권교육, 평화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국제이해교육 등 다양한 분야와 주제에서 사용되어 온 개념과 방법론 및 이론을 취하면서 다면적인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들은 강조하고 있는 세부 내용이나 주제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더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평적 관계 맺음으로 시작하는 세계시민교육

김동혁 선생님은 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사(광주, 2015)로서 광주 문정여고에서 도덕/윤리 교과 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세계시민교육이 '수평적 관계 맺음'에 기초를 뒀야 하며 '세계시민'이라는 단어 자체가 계속해서 구성되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에서 주어진 사유의 틀 대신, 기존의 생각을 버리고 자신만의 '사유의 틀'을 가질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아무래도 상관없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학생들의 머리보다는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 힘쓰고 계십니다. 또, 학생들이 스스로 깨닫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강요당하는 세계시민교육은 폭력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나에게 세계시민교육이란?

수평적 관계 맺음

저에게 세계시민교육은 '수평적 관계 맺음'입니다. 시민은 '인간(人間)'입니다. 인간이란 한자를 뜻 그대로 풀이할 경우 '사람 사이'라고 할 수 있고, 결국 인간은 '사이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람 사이에서만 인간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관계를 형성하며 성장하고, 관계를 잃어가며 죽어갑니다. 관계는 만남이고 소통이고 연대고 투쟁이며, 사랑이며 삶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미드가 인간의 정체성은 내가 바라보는 나와 남이 바라보는 나와 의 끊임없는 긴장관계 속에서 형성된다고 했을 만큼 인간은 관계 속에서 '진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 맺음의 방식이 일방의 기준을 획일적으로 강요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때 인간은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 구분으로 규정되며 쌍방의 끊임없는 갈등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피해자가 승리한다 하더라도 일

방의 기준을 강요하는 형태의 관계 맺음 방식이 수정되지 않는 한 예전의 피해자는 가해자가 되고, 예전의 가해자는 피해자가 되는 소모적 갈등의 악무한적 고리가 만들어질 뿐입니다. 평화도, 아름다움도 없이 오직 갈등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관계 맺음 방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역전이 아닌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구분을 없애는 관계 청산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의 기준으로 우리와 타자를 분리하고 우리 밖의 타자(주류 문화를 거부하거나 배척당한 소수자들)를 배제하며 우리 안의 타자(주류 문화를 수용하였으나 주류 문화 속 경쟁에서 뒤처진 소수자들)를 이용하는 등의 수직적이고 폭력적인 관계 맺음에 대한 반성적 성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상관없는 사람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 그의 삶과 행복에 대한 존중에 기초한 수평적 관계 맺음 형성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계시민교육은 바로 수평적 관계 맺음을 시민들과 함께 구성해나가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시민의 개념은 끊임없이 구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 중의 개념

저는 세계시민이라는 개념은 끊임없이 구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이것이다 하는 틀로 가두어 놓을 수 없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기존의 '시민' 개념에 '세계'라는 공간적 확장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시민이라는

기존의 개념에 세계라는 공간적 개념이 더해지고 그 안에서 평화, 인권, 정의, 지속 가능한 발전 등의 다양한 가치들을 담아 조화를 이루어나가는 개념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의 첫 걸음: 생각의 틀 깨기

제가 학생들과 세계시민교육을 시작할 때 항상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생각의 틀 깨기' 과정이 그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알타미라 벽화 이야기를 나눕니다. 알타미라 벽화는 구석기 시대 벽화인데 소 그림이 있습니다. 이 소 그림을 자세히 보면 정말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그렸는지를 의심할 정도로 매우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흘러 신석기 시대가 되면 소 그림이 훨씬 추상화되고 단순화됩니다. 머리는 세모, 몸통은 네모 모양 같은 식으로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왜 신석기 사람들이 더 못 그렸지?'라고 하며 의아해합니다. 이 차이는 구석기인들은 '보는'대로 소를 그렸고, 신석기인들은 '아는'대로 그렸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석기인들은 어떤 사유의 틀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소의 모양을 그린 것입니다. 소의 모습을 재구성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지요. 반면, 신석기인들은 다양한 소들을 보면서 공통점을 발견하고 그걸 추상화·개념화했습니다. (머리는 세모, 몸통은 네모 등) 이 예를 통해 학생들이 사유의 틀, 인식의 틀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와 비교해 오늘날을 생각해보게 합니다. 우리는 신석기인들보다 더 구체화되고 섬세한 사유의 틀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구체화된 사유의 틀을 가지긴 했지만, 그것이 곧 내 것은 아닌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방대한 지식과 정보가 수없이 교차되고 있는 현대에서 그걸 쫓는 것만으로도 바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식의 틀을 갖추기도 전에 다른 사람의 것이 주어지고,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빨리빨리 익히고 쫓아가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나의 인식의 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사회의 틀로써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학생들이 세계시민의 개념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걸 먼저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세계시민교육의 오류 중 하나는 그 교육이 주장하는 가치만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좋다가보다 그럴 경우, 그 교육은 거기에만 머무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제시된 것을 있는 그대로 따라가거나 반복하는 수준에 머무르게 될 수 있고요. 저는 학생들이 먼저 고민을 해 보도록 던져주고 싶습니다. 자신만의 사유의 틀에 관해 생각해보고, 거기서부터 출발하자는 것이지요. 스스로 인식의 틀을 계발하고 사유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는데,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자신만의 사유의 틀을 고집하지 않고 '서로'로 확대하는 것을 꾀합니다. 그래서 아집이 아니라 독창성을 유지하면서도 상대편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생각의 틀 깨기' 수업의 첫 번

째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거친 후 각자에게 세계시민이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나눠보게 합니다. '세계시민'에 대해서도 자신만의 개념을 먼저 가지도록 하고,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개념과 조화하도록 합니다. 무수히 많은 세계시민에 대한 개념을 추출해내되 그것이 퍼지지 않고 뭉칠 수 있도록 생각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정도가 제가 지금까지 해 온 단계인 것 같고, 차후에는 학생들과 함께 '세계시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더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다 보면 세계시민교육의 다양한 주제들(평화나 지속 가능한 발전 등)을 접할 때 좀 더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제가 가르치고 주입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 저는 학생들 스스로 세계시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자기 주변에서 이것들을 실천해 나가고, 공유해 나가는 장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과정이 단기간에 되는 것은 아니어서 저도 아직까지는 '생각의 틀 깨기' 정도 진행을 했고, 앞으로는 이런 틀이 깨어진 아이들이 일상에서 경험한 자신의 삶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 세계시민이란 주제 속에서 함께 나누고 주제들을 추려가 보고자 기획하고 있습니다.

답론과 소통능력 기르기

앞서 세계시민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평적 관계 맺음이라고 말씀 드

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평적 관계 맺음을 형성함에 있어 실천해야 할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 안에 들어 있는 진위, 선악, 미추에 대한 획일적 기준을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시하는 것들이 전혀 당연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백 년 전 중국에서는 전족이 당연한 미의 상징이었고, 불과 백 년 전만 해도 인간을 사고파는 것이 당연시되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지요? 시대별로 이상적으로 여겼던 여성의 몸매에 대한 기준도 꾸준히 변해왔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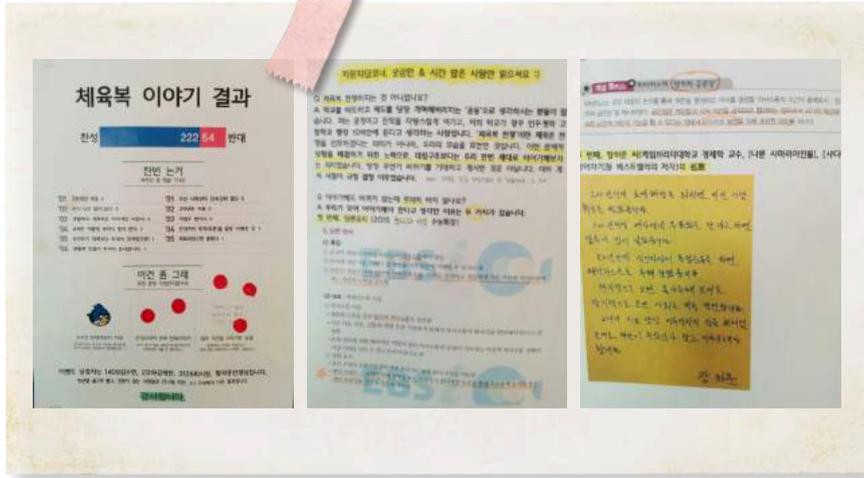
우리는 일면적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담론과 소통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자신과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때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소통 능력입니다. 생각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지향하며 지평을 확장해가는 것이지요. 용광로 같은 통일이 아니라 샐러드 볼 같은 조화이며 관계의 확장입니다. 더 나은 근거를 제시하는 관점을 자발적으로 수용하며 담론을 확장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담론 확장과 소통의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동아리 및 학급 학생들과 함께 보았던 영상을 하나 소개합니다. P&G사의 <like a girl>이라는 영상입니다. 인터뷰 대상들에게 여자에 같



이 행동하라고 주문한 다음 진짜 여자애들이 한 행동을 보여주며 그들 안에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성찰하게 한 동영상입니다. 학생들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며 자기 안에 있는 자아와 타자를 분리하고, 타자를 차별하고 배제하게 만들었던 고집불통의 획일적 선입견과 편견들을 찾아보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 저희 학교에 '체육복 전쟁'이란 제목의 벽보가 붙었습니다. 학교가 공식 생활복을 지정하면서 그 동안 학생들이 생활복 대용으로 입었던 체육복을 금지하였는데, 이에 대한 학생들의 찬반 입장을 표하기 위해 학생들이 만든 벽보였습니다. 벽보는 들리(체육복도 생활복 대용으로 입게 해 달라!)와 고길동(학교 공식 생활복 외에는 금지해야 한다!)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게시물의 끝에는 들리와 고길동에 해당하는 빈 칸이 있어 학생들이 지지하는 쪽에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붙인 벽보는 학교 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학교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졸업생 및 재학생들이 이 주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같이 토론하였습니다. 벽보에는 양쪽 입장을 지지하는 글들이 추가로 게시되기도 하였고요. 상대 의견을 폄하하거나 인신공격하는 글들도 있었으나 다수의 합리적 의사소통을 원하는 학생들의 대화 속에 묻혀버리고 자정되었습니다. 민주적 담론의 장이 펼쳐지고 평등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얼마 후 나온 담론의 결과물에는 흥분에 가득 찬 글



대신 담백하고 진솔한 경과가 담겨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담론의 결과물이 학교를 지금 당장 바꾸지 못해도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미래의 민주적 학교를 만드는 징검다리가 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학생들의 손에서 시작되고 진행되었으며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학생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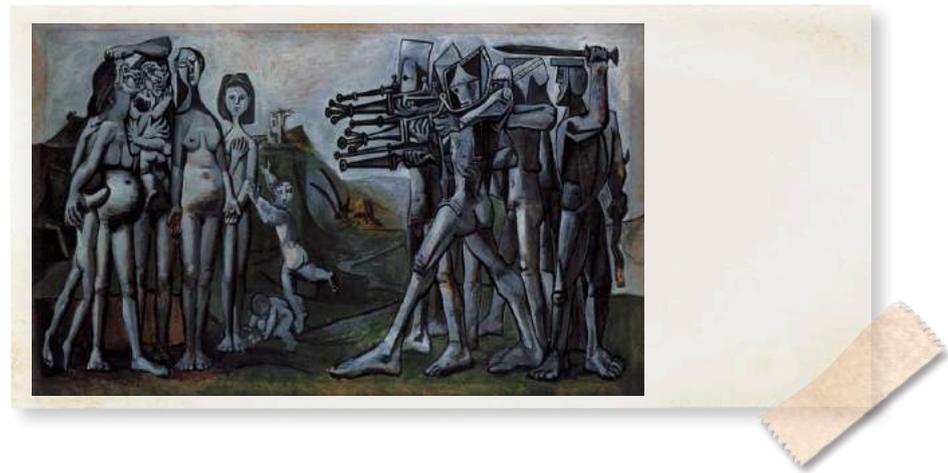
아무래도 상관없는 사람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

담론 확장과 소통을 위해서 지향해야 할 방향은 '아무래도 상관 없는 사람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과 그의 삶과 행복 가능성에 대한 존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은 책임소재를 찾기 어렵습니다. 한겨울 차가운 길거리에서 저체온증으로 유명을 달리한 노숙인에 대한 책임을 특정인에게 묻기 어렵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바다 밑으로

삶의 터전이 잠겨버린 투발루(Tuvalu) 주민들의 아픔에 대한 책임을 특정인에게만 물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능력을 가진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책임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감수성이 필요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과 수업이나 이야기를 할 때 학생들의 머리보다는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편입니다. 사람은 머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아무래도 상관없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공감'을 강조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편입니다.

학생들과 함께 미술작품을 감상하며 감수성 기르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아래 그림은 피카소의 <한국에서의 학살>입니다. 수업시간에 학생들과 함께 이 그림을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무기력한 여인들과 천진난만한 아이들, 그리고 그들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갑옷을 입은 군인들을 그려 전쟁의



참혹성과 잔인함을 이야기한 피카소의 감수성에 흠뻑 젖었습니다.

감수성 교육과 함께 학생들이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찾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현장에 학생들이 직접 가 보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 직접 경험하고, 접촉하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에 있는 다양한 기관과 단체의 활동들을 접하고 함께 참여하는 것인데, 광주에는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함께 하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학생들이 직접 연락해 보도록 하고 학교로 모셔서 이야기도 듣고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면서 학생들의 경험의 폭을 넓혀보고 있습니다.

지역은 학생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너희는 세계시민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 너희들이 곧 세계시민이기 때문에 ‘나는 학생이야’라는 생각보다는 ‘시민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보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서 출발하는 것이지요. 이런 맥락에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예를 들면 학교에서 청소하시는 용역 아주머니, 급식 조리사님들에 대한 호칭 문제(‘여사님’이라는 호칭이 적절한가, 혹은 ‘이모님, 아주머니’가 적절한가 등에 대한)라든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휴게 공간에 대한 조사 등이 있습니다. 항상 주변에서 보는 청소 아주머니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 분들에 대한 생각부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학교 밖, 지역까지 확장해 나가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세월호 참사의 아픔에 대한 공감을 우리 안과 밖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아픔과 공감으로 연결하고 확장해 나간 일입니다. 동시대에서, 또 한 국가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이웃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자는 뜻으로 세월호의 아픔에 대해 이야기 하고, 공유하고, 영상과 책(『금요일엔 돌아오렴』)을 함께 보고, 희망 응원 편지도 썼습니다. 그리고 진도 팽목항에 가서 참배하고 유가족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가졌고요.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많이 슬퍼했습니다. 학생들과 이런 슬픔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야기하던 중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를 기억하기 위해 ‘우리 안의 세월호를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주변과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 또 하나의 세월호가 무수히 많다는 생각을 한 것이지요. 이 생각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시민단체의 활동들을 찾아보면서 근로정신대 할머니라든지, 지중해 난민이라든지, 투발루 기후 난민, 이주민 노동자, 아동 노예 노동, 멸종 위기의 동물들 등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역 내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아픔에 공감하여 불매서명운동, 기부 팔찌 모금 운동 등을 거리에서 차가운 바람을 맞아가며 진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중해 난민 및 아프리카에서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달리하는 아이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연대를 실천하기 위해 학생들이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여러 기관들을 알아보고 관련 활동(예: 세이브 더 칠드런의 ‘신생아 살리기 모자 뜨기 캠페인’ 등)에도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이 아픔을 느끼며 가장 답답했던 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아픔을 쌓고, 그러다 보니 아픈 것을 잊고 싶어했는데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느낀 아픔을 또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하겠다는 생각과 다른 사람에 대한, 또 하나의 세월호를 찾기 위한 공감과 참여로 연결되었다는 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안과 밖을 이분법적으로 구분짓지 않고 자유롭게 넘나들며 자신의 아픔으로 품어 안는 행사들을 스스로 만들고 참여한 경험이 학생들로 하여금 '아무래도 상관없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공감'을 경험하고 이를 친구들, 주변의 사람들과 소통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

지금, 우리에게 세계시민교육이란?

고등학교에서 가능성 찾기

사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보충 수업도 있고 해서 학생들이 많이 바쁘기 때문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글을 함께 써 보는 등의 활동에 제약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알고 싶어하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요즘 대학에서도 다양한 전형과 면접 등에서 자신만의 생각, 인식의 틀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학생들이랑 하는 활동들이 현실적인 부분들(대학 입시 등)에도 도움이 되면서 자기 삶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길고 거창한 무언가를 주기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나 생각할 거리들을 알려주고 자유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세계시

민과 관련된 화두 혹은 단서들을 제공해 주고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언제까지 준비를 해 오라고 하면 아이들이 상당히 준비를 잘 해 옵니다. 지금의 고등학교가 입시 위주라고 하고, 또 이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열정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고 싶다는 열정 말이지요.

사실 저도 수업을 할 때 어떤 경우는 잘 되었다는 느낌이 들지만, 어떤 경우는 정말 기운 빠지고 끝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선생님이 '내 눈에 안 보이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특히 단시간 안에는) 계속 뿌려주고 학생들이 접촉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메시지를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속 자료도 제공해주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열심히 참여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 한 번 발표대회 한다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떤 씨앗들을 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교과서에서도 많은 부분이 세계시민교육에서 말하는 내용과 주제들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걸 선생님들이 꿰어내는 역할을 해 주는 거라 생각하고요.

인상적인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세계시민교육 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아무래도 상관없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공감이라고 했는데 이걸 실제 볼 수 있던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등굣길에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 한 두 분을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2학년이 되

니까 이런 분들이 네 다섯 분으로 늘어난 것이지요. 학생은 이것을 그냥 '늘어났구나' 하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왜 수가 늘어났을까' 하고 생각을 하기 시작해서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된 것 같다는 생각에 경제 데이터를 찾아보기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밤에 폐지 주우실 때 위험할 수 있으니 옷에 붙일 수 있는 야광스티커를 만들어서 이 분들에게 선물도 했지요. 그러다 외부의 기관 활동에도 참여하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바깥으로까지 관심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감수성 교육이 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스스로 느끼면서 계속 시선과 관심이 확장되고 방법과 길들을 모색해보는 과정 말이지요.

가능성 확장하기: 학교 안과 밖 연결하기

우리 학교는 수요일마다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해서 3시간 연속의 시간이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 제가 보충수업 없는 날을 건의해서 약 5시간 정도 시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럼 점심 먹고 나가서 학생들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지요. 거리로 나가서 학생들 관심 분야의 캠페인 활동을 하기도 하고, 가까운 곳에 위치한 전남대학교 캠퍼스에 가서 원전이나 환경보호 관련 활동, 또는 유기견 보호 등과 같은 캠페인 활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나서서 관련 시민단체를 소개하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사회참여대회라는 것들도 지역에서, 또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참여하기 수월한 캠페인, 학생들이 평소에 관심이 많고 좋아하는 활동들(팔찌 만들어서 캠페인 하기 등)도 많이 있고요. 또 지역 내 NGO나 시민단체들도 많이 있어서, 학생들에게 분야별 기관/단체들을 소개해주고 관심분야에 따라 직접 더 알아보라고 하기도 하고 모둠 별로 활동신청을 받아서 연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직접 참여해볼 수 있는 곳을 자기 관심분야에 따라 선택하지요. 이런 부분이 또 입시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웃음). 그런데 학생들이 입시를 목적으로 이런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과 계기로 이런 활동에 참여하든, 저는 학생들에게 최대한 많은 만남과 경험의 장을 열어주고 연결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 학생들의 관계성이 확장되고 그 안에서 경험과 인식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해진다고 생각하고요.

학생들과 경험한 것 중 많은 울림이 있었던 날이 있습니다. 광주 지역에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함께 하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한일 양국의 시민단체들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고 15년만인 지난 해에 승소를 했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승소보고대회 행사를 광주에 있는 컨벤션 센터에서 했는데 좀 급하게 열리고 홍보가 덜 되다 보니 참석하는 사람 수가 정말 적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저녁에 공부도 해야 하고 보충수업도 해야 하는데 한 300명쯤 되는 학생들이 자

발적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소도 학교에서 버스로 몇 번 갈아타고 가야 하고 저녁도 굶어야 하는데, 학생들이 부모님 허락을 받아와서 참석하겠다고 한 것이지요.. 그렇게 300명의 학생들이 센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곳에서 우리 학생들이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바로 그 승소보고대회에 오신 일본 분들 때문이었습니다. 머리가 하얀 노인 분들이 오셨는데, 이 분들이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함께 일본 법원에서 소송에 참가하면서 계속 이 일을 함께 해 오신 것이지요. 그 자리에서 이 분들은 자신들을 세계시민으로 생각하고, 그렇기에 국적과 인종을 초월해서 올바르게 정의로운 일에 참여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생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정의와 평화를 위한 세계시민의 모습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광주시장, 교육감 등 각계 각층의 시민들이 함께 한 행복한 자리여서 더욱 기억에 남습니다. 학생들에게 이 경험은 자기를 감싸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인류 보편의 가치들(자유, 정의, 평화와 같은 가치들)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각을 나뉘 가며 그것들을 아름답고 다양하게 구현하는 것을 보고 느끼게 해 준 세계시민교육의 살아있는 현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공유와 연대로 확장해나가기

예전에 열대 우림을 지키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하루 종일 손을 잡고 나무를 지켰던 외국의 사례에 관한 책(『나무를 껴안아 숲을 지킨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삶 속에서 평화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활동했던 것이 멀리 떨어진 나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맞게 살아가고 행동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남들과 공유하는 것이 세계시민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남들을 도와주려고만 하지 않고요.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앞서 말씀 드린 담론과 소통함에 있어 권력과 폭력을 구분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폭력은 다른 사람의 의지에 반해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며, 가해자와 피해자, 방관자, 망각하는 사람 모두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권력은 사람들이 공적으로 동의하는 의견으로서 특정인이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행동할 때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며, 사람들이 다시 흩어지면 그 즉시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시민교육의 이름으로 실천하는 활동들이 폭력이 아닌 권력 공유의 장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천사와 악마는 언제나 함께 합니다
(오른쪽 그림 참조) 모든 일에 양면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펼쳐내고자 하



〈원의 극한(천국과 지옥)〉, 모리츠 예서, 1960년

는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아무리 필요한 것이고 좋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학생들의 주체적 자각과 요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요될 때 그것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점에 주의하고 성찰하면서 학생들이 또 한 명의 시민으로써 자각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회와 시간을 주고 소통해야 할 것입니다.



“저에게 세계시민교육은 ‘생각 깨기’에 중심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관계를 확장하고 그것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 관계 속에서 서로 존중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그런 인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여러 사례들을 나누고 전지구적 문제들을 학생들에게 제시해주고자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 화두를 가지고 자신이 살고 있는 현장에서 행동하고, 또 동시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지

역 밖의 친구들과 소통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에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앞으로 세계시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 실천하기

곽병남 선생님은 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사(충북, 2015)로서 현재 충북 영동 초등학교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있는 모습에서 한발 더, 긍정적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교육활동이 세계시민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라든지 현상, 이런 것들에서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몸부림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전교생이 100명도 되지 않은 지역의 작은 학교에서 선생님은 아이들과 ‘외발 원정대’를 만들어 지역 사회의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해결이나 변화를 위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선생님은 학교의 규모에 관계 없이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슈들이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최고의 재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생님의 관심 분야에서 출발하여 아이들과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찾으면 이것이 곧 세계시민교육의 실천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에게 세계시민교육이란?

지금에서 한발 더,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가기 위한 교육

저는 세계시민교육이라는 말을 재작년 말부터 접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2009년도부터 유네스코 학교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발전교육 또는 국제이해교육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활동해 온 터라 세계시민교육을 처음 접했을 때에도 낯설지는 않았어요. 이후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책이나 자료를 통해 배우면서 세계시민교육에서 말하는 가치나 방향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이나 국제이해교육처럼 우리들 마음속의 어떤 지향점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저는 교사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에 늘 “교육이란 무엇일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교육일까?” 하고 고민해왔는데요, 지속가능발전교육, 국제이해교육 또는 세계시민교육 이런 것들이 저에게 교육에 있어서의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었어요.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면 항상 학교 내 커리큘럼, 좀 작은 의미에서의 ‘교육’에 국한해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그걸

로는 아무래도 좀 부족하고 답답한 면이 커요.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뭔가 해소되지 않은 답답함을 좀 열어주고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기폭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했는데, 이런 면에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세계시민교육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됩니다’ 라는 식으로 정의된다면 우리 세계에 걱정이 없겠죠? (웃음). 저에게 세계시민교육은 지금 있는 모습에서 한발 더, 긍정적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어떤 교육활동 모두를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라든지 현상, 이런 것들에서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가기 위한 다채로운 ‘몸부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요.

지역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활동: 즐겁게 아이들의 인식 폭 넓혀가기

저는 2009년 즈음 유네스코 학교활동을 시작하면서 아이들이랑 작은 활동들을 기획해서 진행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과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초등학교 아이들이다 보니 아이들 스스로 찾고 만들어내고 실천하는 것은 어려워요. 물론 그렇게 하면 가장 좋겠지만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의 시나리오를 먼저 짰어요. 맨 처음 아이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활동들을 기획했어요. 당시 학교가 충북 영동의 작은 학교였는데, 보통 시골에 사는 아이들이라면 늘 자연을 접하고 풀과 꽃과 가까이 생활할 거

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도시 아이들과 별반 다를 바 없거든요. 인터넷 게임과 스마트폰 다루기를 좋아하지, 지역이나 자연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곳인지 알게 해 주고 싶었어요. 다행히 학교 주변이 동강 상류지역이라 환경이 좋고, 갈만한 곳도 많았어요. 습지라든지, 마을의 중요한 유적지나 문화재가 있는 곳이라든지, 혹은 항상 아이들이 바라보는 뒷동산이라든지 (보기만 하지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이런 곳들을 재조명해보는 것이 아이들에게 필요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 반 학생들 13명을 데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나 담임교사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을 활용해 이런 공간을 찾아갔어요. 수행과제의 성격이라기보다는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어떤 ‘장소’와 만나고 아이들이랑 공간과 그 공간에 얽힌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보니 아이들에게서 교실에서는 보지 못했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재잘재잘 이야기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살고 있던 곳이 이런 곳이었어?’ 하는 새로운 깨달음도 있었어요. 이렇게 작게 시작했던 활동인데, 옆 선생님도 알게 되고, 교장·교감 선생님들도 계속 관심을 갖게 되면서 학교 전체가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전교생이 100명 남짓 작은 학교이니 다 같이 움직이기 수월했죠. 학교 구성원 전체가 다같이 우리 지역 안 ‘장소’에 가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교장선생님께서 직접 숲 이야기도 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을 초청해서 마을 이야기도 들곤 했어요. 그러면

서 마을 도랑 청소하기, 소하천 가꾸기, 습지 가꾸기, 지역 문화 이해하기 같은 활동을 더불어 진행했어요. 마을 도랑 주변을 보면 쓰레기가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마을 어르신들이 여기에서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거든요. 아이들이랑 이런 걸 보면서 청소를 하고, 나중에는 사철채송화도 심었어요. 예쁜 꽃들이 있으면 누구나 쓰레기를 버리기 좀 그렇잖아요. 꽃을 심고 나서 잘 가꾸고 이어나가기 위해 안내판도 만들어서 예쁘게 꽂아놓았구요. 또 마을 주변 습지에 가서도 습지에 대한 설명도 듣고, 정화 활동도 하고요. 이런 활동을 2~3년 반복하다 보니 아이들의 경험과 인식의 폭이 조금씩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뒤로 또 뭐가 다른 방향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마침 새로운 주제를 찾았어요. 지역 내에 ‘송호리솔숲(송호국민관광지)’이라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데, 캠핑장으로 주로 이용해요. 전국에서 찾아온 이용객들이 캠핑하고 놀다가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그냥 떠나는 그런 곳이 되었어요. 그렇다 보니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방문객들이 결코 달갑게만 보이진 않았지요. 그래서 주민들과 방문객들 사이에 갈등도 생기기 시작했구요. 이걸 보면서 아이들과 무언가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각자의 입장이 있겠지만, 무언가 공동의 행동이나 합의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아이들이랑 아이디어를 모아봤어요. 그래서 이곳은 아이들이 사는 마을이니까 아이들이 방문객들에게 “저희가 사는 이 곳을 좀 더 아껴주세요”하고 말하는 캠페인은 어떨까 생각했어요. 학교에서 제가 동아리 아이들

에게 외발 자전거 타기를 지도하던 중이라 아이들과 주말에 외발 자전거를 타고 숲에 가서 캠페인 활동을 시작했어요. 동아리 활동이랑 캠페인 활동을 접목한 것이지요. ‘우리는 솔밭지킴이 외발원정대’라는 이름을 걸고 프로젝트 활동을 했어요.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 재활용 통을 만들어서 캠핑장에 비치하고, 저희가 직접 제작한 작은 휴대용 재떨이를 아이들이 외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나눠드리니까 방문객들도 재미있어 하고 관심을 가져 주더라고요. (평소에 담배꽂이를 소나무에 버린다는지 하는 문제가 많았어요) 어떤 문제에 대해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 보세요’라고 접근하면 서로 기분 좋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담배꽂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냥 “꽂초 버리지 마세요”라고 접근하는 것과 아이들이 “이 휴대용 재떨이를 이용해보세요.”라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특히 외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캠페인을 하니까 다들 즐거워하고 신기해했어요. 처음 보는 아저씨 아주머니들도 “너 자전거 정말 잘 탄다” 이렇게 말을 걸어오고,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이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었어요.

이런 활동들을 하고 나서 아이들에게 짧은 소감문을 받았어요. 그럼 대부분은 ‘즐거웠다’, ‘자랑스럽다’ 이런 반응을 보여요. 사실 초등학생에게 최고의 대답은 ‘재미있었어요!’예요. 재미있으면 학교에 가고 싶고, 학교에서 재미있다는 것은 아이들이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학교에서 무엇을 주든 아이들이 재미를 느끼면, 그걸 받아들이는 아

이들이 얼마든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키워낼 수 있는 거니까요. 내가 좋은 걸 주어서 아이들이 좋게 받아들인다기보다, 내가 준 것이 그 아이들에게 즐겁게 가고 있고, 어떤 의미로 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즐겁게 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해요. 다녀와서도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기보다는, 그저 ‘어제 다녀온 걸 한번 써보자. 그림 그려도 좋고, 글도 좋고.’ 그 정도로 이야기하죠. 저는 그렇게 하는 것에서 만족했어요. 아이들에게 또 새로운 짐을 지우기보다는 그 활동을 충분히 즐기고, 좋아하고, 느끼는 것에 더 중점을 두었거든요.

프로젝트 활동, 모두에게 새로운 길과 즐거움을 주다

제가 이런 프로젝트 활동을 중점적으로 했던 이유는 세계시민교육과 같은 교육에 있어서는 스스로를 먼저 볼 줄 알고, 어떤 관계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 아이들은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 나와 사회의 관계라든지, 나와 타자가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경험의 폭이 아무래도 좁으니까요. 집, 학교, 엄마 아빠, 친구 정도의 관계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관계에 대한 이해, ‘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학교를 사회의 축소판으로 볼 수 있으니 학교 안에서도 사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교육 여건에서 교실 안 모습은, 초등학교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 지식 위주

로 치우쳐 있는 게 사실이에요. 입시라는 부분이 멀리 있다 해도, 교육의 중심이 입시가 되다보니 초등학교 아이들도 입시를 대비하는 지식형 아이들로 자라는 게 현실이고요. 이런 면에서 저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활동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경험하고 실천을 통해 얻어지는 것은 오래가기 마련이니까요. 이런 경험적 실천에서 깨닫고 배운 것은 일부러 공부하지 않아도 자기 삶에 계속 남아서 꾸준히 영향을 주는 법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초등학교 아이들처럼 연령이 낮은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통해 관계를 형성해보고 유의미한 활동을 실천해 볼 수 있는 프로젝트 활동이 저는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믿어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말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하고 느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니까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실 때, (물론 시간이나 여건이 허락해야 하지만)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일정 기간 동안 진행하길 추천해요. 재미도 있고, 학교 가는 즐거움도 있고, 또 아이들하고 관계를 형성하기에도 좋거든요. 사실 이걸 제가 지속가능발전교육이나 세계시민교육을 시작한 계기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9년차 교사가 되었을 때 저를 보니 어느 순간 교실의 사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이거 해야 하는데 왜 안 해! 이거 빨리 해! 안 하면 나쁜 사람!”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아, 이건 아닌데’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럴 때 이 세계시민교육, 그때는 지속가능발전, 국제이해교육이 다가온 거죠.

관련된 글들을 읽으면서 “그래, 교육은 사람을 만드는 것인데, 나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았던 게 아닌가” 하는 자각과 더불어 앞으로 교육 활동에는 이런 가치를 따라 가야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많은 선생님들은 경력이 10년이든 1년이든 마음 속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한 편으로는 아이들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도 있을 거구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사실 관계 회복이 아닐까 싶어요. 선생님들은 누구나 취미, 관심거리, 좋아하는 활동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그게 운동이든 독서든, 다른 기능적 활동이든 이런 선생님들의 관심거리, 잘 하고 좋아하는 일들을 연결하면 아이들과 관계 회복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세계시민교육 실천도 마찬가지지요. 세계시민교육을 아이들과 하려고 하면, 새로운 것, 모르는 것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선생님이 원래 잘 하고 좋아하는 일들과 세계시민교육을 접목시키면 아이들과 관계도 회복되고 선생님도 즐겁게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 드린 외발 원정대 활동 같은 경우도 제가 외발자전거 타기를 좋아하니까 아이들한테 가르쳐준 것이고, 또 아이들이 배우면서 즐겁고 기뻐하니까 동질감이 형성된 거예요. 이 활동에 세계시민교육적 요소가 들어갔던 것이고요. 지역 사회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해결이나 변화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외발 자전거 타기라는 기존 활동에 접목시키니 저도 큰 부담 없고, 아이들도 재미있어했던 것처럼요. 이게 정답은 아닐지 몰라도 저는 선생님들께서 이걸 경험해보면 만족감을 느끼며 활동을 지속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매

일 같이 생활하는 내 제자들이 조금이나마 변화하고, 그 속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이 주는 만족감이나 좋은 마음, 그것이 선생님들이 이런 활동을 하며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요.



세계시민교육의 가능성 찾기

즐기면서,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저는 세계시민교육이든 지속가능발전교육이든 국제이해교육이든, 이름이 무엇이 되었든, 이런 교육은 단 시간에 이룰 수 있는 교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존재하고 사회가 이어지는 한, 계속해서 다루어질 화두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2016년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조금해한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그 흐름이나 물결이 바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괜한 조급함에 매몰되어서 쓰러지는 것보다는, 혹은 자포자기하거나 실망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즐기면서 활동을 해 나가는 게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무언가를 바꾸고 이루려 하기보다는, 성장하면서 혹은 나중에 다양한 분야에 자리를 잡을 때 지금 경험한 이런 활동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것이구요. “예전에 선생

님이랑 이런 활동을 했었지, 해보니 어땠는데” 하는 경험의 힘이 아이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구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다양성의 가치나 다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었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과 갈등을 잘 해결해나가는 그런 세계시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받았던 교육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 세대가 받은 교육도 그렇고, 교육의 목표가 “국가를 위해서, 같은 방향으로, 힘을 합쳐서, 온 국민의 힘으로” 이런 것이었다면, 세계시민이 추구하는 것은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의 문제들을 접하며 이런 ‘다름’에서 오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교육의 패러다임도 그렇게 바뀌어야 하고 실제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해요.

세계시민교육은 세계시민교육 백과사전을 만들어서 시험을 보게 한다든지, ‘세계시민교육은 무엇이다’ 하고 괄호 채우기 하고, ‘세계시민이 아닌 것은?’ 같은 질문에 1, 2, 3, 4로 답을 고르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직면할 세상은 지금보다 어찌면 더 복잡하고, 더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 많은 세상일 텐데 그걸 어떻게 극복해갈지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해요.

작은 학교에서, 지역에서의 세계시민교육 실천은?

세계시민교육이나 국제이해교육 같은 용어는 처음 들으면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용어 자체가 주는 느낌이 뭔가 외국 사람들과 해야 할 것 같고, 웬지 뭔가 거창한 것 같고(웃음). 이 분야를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서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앞서 말씀 드렸듯 사람이 살아가는 게 결국 나와 타인, 그 다음 가족, 지역, 사회, 국가, 그리고 다른 나라와 세계, 이렇게 확장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확장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속해 있는 그룹과 지역에서의 여러 문제나 쟁점들에 대한 가치와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더 범위가 넓은 집단과 사회와 관계를 형성하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무리 작은 학교, 작은 지역이라도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이슈나 문제들은 세계시민교육을 위해 정말 좋은 재료가 된다고 생각해요. 내 교실, 내 지역, 내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먼 미래에 더 큰 범주의 관계들을 만들어내기 힘들 테니까요.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 답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작은 것에서 중요한 것을 찾아내면, 그 작은 것들이 최고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디든 훌륭한 교육의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가끔 “뭘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질문을 받을 때면 항상 이렇게 대답해요. “동네를 돌아다녀 보세요. 당장 학교 주변에 가보세요. 정말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요.” 내 학교 답을 넘어 한 발짝만 나가보면 이야깃거리가 무궁무진해요. 예를 들어 제가 왜 처음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가 하면, 제가 강을 좋아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나의 관심사는, 남들보다 나 스스로가 훨씬 더 잘 볼 수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아이들한테 남다른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고, 무언가 생각거리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항상 ‘내’가 관심 있는 분야부터, 내 주변을 둘러보시면, 얼마든지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런 활동을 2009년부터 해 왔는데, 그동안 활동을 돌아보면 반성할 부분이 많아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했다는 고민도 들고요. 또 저는 이걸 좋아하고 즐기는데 옆의 선생님과는 어떻게 하면 더 잘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해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과제예요. 원래 누군가가 무엇을 하라고 던져주면 별로 하고 싶지 않잖아요.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져야 하고 싶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말로 ‘같이 해봐요’ 하기보다는 제가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걸 보고 관심을 보이시면 그 때 소개를 해드리고, 같이 해 보자는 말씀도 드리구요. 또 제가 있는 지역이 아무래도 규모가 작아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수월한 면이 있으니까 이 지역 학교들과 같이 고민하고 함께하는 활동도 계획해보고 싶어요. 또 교사들은 언젠가는 다른 학교로 전출을 가게 되어 있으니, 제가 떠나고 다른 분이 오더라도 계속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어요. 세계시민교육은 결국 시켜서, 억지로 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동료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감 속에서 자발적으로 이걸 같이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세계시민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고 실천한다고 할 때 한번 꼭 생각했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세계시민교육이 다루는 주제나 문제들이 정치적 이슈와 연결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세계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을 생각해 본다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이슈나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또 다양한 관점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학교나 교실 환경에서 과연 이것이 가

능할지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해요. 비판적 사고를 길러야 한다고 말하지만, 아이들이 말하면 “네가 뭘 알아.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식의 반응이 여전히 많으니까요.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시민교육이 아이들에게 잘 전해지기 위해서는 자생적이고 자율적인 교육의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교사들 역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장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배움으로 행동하기, 행동으로 배우기

임영아 선생님은 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사(울산, 2015)로서 울산강남고등학교에서 음악 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멀리 있는 대상이 아닌 내 주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세계시민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지역 단체나 기관의 힘을 빌려 연계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며, 실제로 그것을 행동에 옮기고 계십니다. 또한 '참여'의 힘을 강조하며 학생들은 물론이고 그들을 끌어주는 선생님들 또한 많은 경험을 쌓을 것을 권합니다. 선생님은 늘 곁에 있지만 잘 의식하지 않는 것들에 관심을 주는 일의 중요함을 깨닫고 학생들과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세계시민교육이란?

멀리 있는 대상에서 주변으로 관심 옮기기

제가 처음 세계시민교육을 접했을 때 가지고 있던 생각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교육이었습니다. 제 대학원 전공이기도 하고, 그간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 공부하고 알아왔던 부분이 주로 ODA적 접근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선도교사로 선정되어 세계시민교육 교사연수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제가 기대했던 접근이 아니어서 의아해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수를 들으면서 깨닫게 된 것은 멀리 있는 대상을 바라보고 하는 교육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시작하는 것이 세계시민교육의 본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이라고 하면 아프리카나 제 3세계 등이 먼저 떠오르고, 그렇기에 나와 멀리 있는 어떤 '대상들'을 향한,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양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선생님들이 세계

시민교육이라고 하면 ‘나’보다는 ‘대상’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대상이 난민이든, 빈곤 지역의 아동이든, 저개발국 사람들이든 말이지요. 그러나 저는 세계시민교육이 어떤 ‘대상’에서부터가 아닌 ‘나’에서 시작할 때 더 현실감 있고 참여적인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자원을 찾다: 민간단체와의 파트너십 만들기

제가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배우고 난 후 새롭게 시작한 활동이 있습니다. ‘청소년 해양 탐사대’ 활동이 그것인데요, 청소년들이 울산 지역의 민간단체와 함께 한 봉사 활동입니다.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데, 고등학생들은 입시를 위해서라도 봉사활동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물론 학생들이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많은 학생들이 필수사항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기왕 하는 활동이면 좀 더 의미 있는 것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다양한 활동 기회들을 찾고 있던 중에 울산 지역 내에 있는 민간 단체인 환경과학교육연구소란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곳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과 친분을 맺게 되고, 이를 계기로 학생들과 연계한 활동을 함께 고민하게 되었고요. 이 기관에서는 마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던 중이었고, 저는 봉사 기회를 찾고 있던 중이라 함께 협력하기로 하고 내용을 구체화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단체이기 때문에 지역의 현황들,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을 잘 알고 있었고, 다양한 현장경험으로 시민운동을 펼쳐오고

있었지요. 물론 전문적 지식도 풍부했고 지역 내외의 다양한 유관단체 및 개인들과도 밀접한 협력 관계에 있었고요. 반면 청소년 대상 사업에 있어서는 학교나 지역 교육청 등과의 유기적 관계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현장에 있는 교사이다 보니 이 부분에 있어 도움을 드릴 수 있었는데, 특히 청소년 모집을 위한 행정 절차나 홍보 등에 있어 제가 할 역할이 분명히 보이더라고요. 또한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의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도 교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참여했는데, 기관에서 이 부분을 적극 장려해주셔서 시작부터 실행까지 함께 만들어가는 좋은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민간단체와의 협력의 모습은 단체가 개최하는 프로그램에 학생들을 보내주는 형태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자 및 교사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며 협력해서 긴밀한 관계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지요.

울산의 잊혀진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다

이 기관과 함께 추진한 청소년 활동은 울산지역 해안선탐사 및 연안정화활동이었습니다. 울산이 현재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공업도시이지만 산업화 이전의 울산은 작은 어촌이었습니다. 급속한 산업화를 거치며 공업도시로 변모하다 보니 해안선이 사라지고 90% 이상의 해안선이 공단의 사유지가 되었지요. 현재 울산은 전국에서 자연 해안선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울산의 해안선은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 힘든 곳이 되

어버렸고, 동시에 울산 시민들로부터 빠르게 잊혀진 곳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울산에 오래 살면서도 생각하지 않던 부분이었고요.

청소년 해양 탐사대를 조직해서 학생들과 함께 한 주요 활동은 산업화 과정에서 사라져버린 울산의 옛 해안선의 기억을 찾고 국제 연안정화의 날과 연계한 해안 정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총 6회로 이루어진 본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은 해양문화를 통해 본 울산의 역사, 해양오염과 지구의 미래 등에 대한 강의를 비롯하여 울산만 탐사 및 환경정화 활동, 산업화로 인한 이주민의 삶에 대한 이야기 나눔(울산 출신 해녀 할머니를 통해 듣는 울산의 바다와 삶 이야기), 해안선 지도 그리기, 울산 석유화학 공단 기업체 종사자의 강의, 시민활동 참여 및 국제연안정화의 날 기념 바다대청소 등의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먼저 학생들과 함께 탐사가 가능한 해안선과 지형을 탐사하고 해안선의 문화재(처용암, 개운포성지, 성암패총, 서생포왜성)를 탐사하며 지역에 대한 이해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잊혀진 이야기들을 알아가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울산의 옛 해안선에 대한 조사와 탐구 과정으로 '처용암(處容巖)'을 방문했습니다. 처용은 울산의 상징으로 지역 축제나 행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요. 교과서를 통해 접했던 처용설화를 비롯하여 지역 축제에서 만났던 처용무와 처용 퍼레이드 등 저도 익숙하게 접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듯 울산의 상징인 처용설화의 비밀을 간직한 문화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내심 기대하며 학생들과 처용암으로 향했는데, 가장 먼저 접한 것은 학



생들과 탄 택시 기사님의 놀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볼 것도 없는 곳에 왜 가냐는 의문과 처용암에 가는 손님은 처음 태워 본다는 말씀이었지요. 과연 처용암에 도착해보니 기사님의 반응이 과장된 것이 아니었음을 느꼈습니다. 거대한 공장지대로 3면이 둘러싸인 애처로운 모습을 보니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거기다 新일반사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4면이 둘러싸인다고 하니 더욱 그러하였고요. 문화재라면 보통 경치와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해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잘 보여주도록 보존되기 마련인데, 처용암은 마치 애통한 처지처럼 버려져 있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학생들과 정화 활동을 시작하려는 찰나 어르신 한 분이 학생들을 반기며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찾아왔느냐며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셨는데, 당신의 고향이 처용암인데 고향을 떠난 지 십수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이 곳을 잊지 못해 매 주말마다 찾아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르신의 말씀에 따르면 예전에는 학교도 있고, 질 좋은 미역도 많이 낚으며, 사람들도 많이 살았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 되었다며 쓸쓸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셨습니다. 이에 더하여 제게 이 곳을 잊지 말고 이 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학생들에게 꼭 전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 일은 저와 학생들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습니다. 이 어르신처럼 울산의 공업화 정책으로 인해 많은 마을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고, 이런 산업 이주민들이 여전히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고 계신데 이 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생들은 대

부분이 90년대 후반에 태어났기에 공업도시 이전의 울산에 대해서는 경험도 지식도 전무한 편입니다. 그 곳에서 만난 처용암은 마치 현재의 공업도시 울산과 예전 작은 어촌 마을 울산을 가르는 경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 학생들과 산업 이주민 어르신들을 찾아가 직접 대화하고 인터뷰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발이 최우선으로 고려된 당시 상황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도 제대로 목소리를 낼 기회조차 없었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학생들은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역사 속에서 잊혀지고 무시되었던 삶의 가치, 사람에 대한 배려, 정의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어려운 환경 속에 사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고 이주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더 알고 싶어 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왜 이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채 매일의 삶을 살고 있었는지 본인들의 삶을 돌아볼 뿐 아니라, 왜 우리 사회에서는 아무도 이 문제를 논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묻고 성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처음 만나는 어르신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더 듣고 싶어하는 모습도 보았고요.

한 가지 활동을 더 했는데요, 바로 인근 석유화학산업 종사자를 초청해 울산의 화학산업이 울산 경제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학생들이 직접 들어보게 하는 것이었지요. 산업 이주민과의 만남, 처용암 및 해안선 문화재의 실태, 해안선 소멸 현황 등을 접하며 학생들이 이런 현상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 시각을 갖게 되었고, 문제의식과 더불어 이 과정에서 소외된 사



람들, 삶에 대해 마음 아파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현실을 보다 균형 있게 보도록 해 주고 싶었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이면이 있고, 복합적인 요인들이 공존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초청된 석유화학공단 기업체 종사자 분께서 학생들에게 울산 산업의 구조와 현황, 울산 지역 경제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제적 위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셨고, 이 시간을 통해 학생들은 보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학생들은 이 시간을 통해 좀 더 복잡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개발의 문제, 삶과 환경의 문제, 지역 경제 성장과 이로 인해 소외

된 사람들의 문제가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님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을 것이고요. 저는 학생들이 더 고민하고, 더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는 마음에 더 무겁게 이 문제들을 가지는 것이 교육적으로도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는 것은 오히려 학생들의 사고를 좁게 만들고 본질적 문제를 보지 못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이후 학생들은 국제연안정화의 날을 맞아 개최한 바다대청소에 참여해 연안 정화활동을 펼쳤습니다. 몇 차례에 걸친 전문 강의와 현장 활동 체험을 통해 머리와 가슴으로 익힌 지식과 공감이 행동으로 발현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일회성 행사였다면 단순히 '쓰레기 줍기'에 그칠 수 있는 행사이지만, 해양 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술술 설명하며 정화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주워오면서도 "이런 비닐은 바다생물들에게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바다거북이가 해파리인 줄 알고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식과 공감, 행동이 함께 가야 하는 이유를 재확인할 수 있었지요. 학생들이 해양 오염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어서인지 많은 양의 쓰레기와 이 쓰레기를 만들어 낸 사람들의 무관심과 이기심에 분노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흔히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보면 활동에서 요구하는 일의 양에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학생들은 하루가 저물어 갈 때 미처 다 치우지 못한 쓰레기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2

세계시민교육의 가능성 찾기

이 프로젝트를 마감하며 학생들은 울산 해안선 지도 그리기, UCC 제작, 보고서 작성 등의 갈무리 활동을 하였는데, 인상적이었던 것은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내가 알게 된 것을 그냥 나 혼자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 이걸 더 알려서 공동의 행동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내년에는 이 활동을 확장하여 '캠페인' 활동으로 이어나가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아이들의 인식 변화와 공감의 확대에 기반한 자발적 활동은 유의미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변화를 끌어내는 원동력이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의 문제와 주제의식을 가진 국제교류를 꿈꾸다

이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며 울산환경과학교육연구소에서 재미있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해양 오염과 개발의 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의 바다 공동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이므로, 우리 학생들과 이웃 나라인 동아시아 국가의 학생들이 연대해 활동해 보자는 제안이지요. 우리 학생들 처럼 일본이나 중국 학생들도 지역의 민간단체들과 환경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으므로 서로의 경험을 확대하고 나누는 차원에서의 교류 활동을 기획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울산과 비슷한 환경을 가진 일본의 가와사키와 먼저 시작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와사키의 경우 울산처럼 공업을 기반으로 한 도시인데 최근 경제적으로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도시이므로 한편으로는 울산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볼 수도 있기에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공동의 문제와 공동의 주제의식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연대하고

활동하는 것이야말로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신을 발견하고 경험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 관심에서 비롯된 다양한 국제교류활동을 많이 해 온 편인데,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 있습니다.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공유와 주제 의식이 없는 국제교류는 지속하기 어려울 뿐더러 어떤 교육적 함의를 갖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흔히 국제교류를 할 때 막연히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고, 문화적으로 교류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런 문화적 교류, 서로의 다른 점을 보고 배우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신기함에서 온 호감은 점점 멀어지고 함께 할 이야깃거리, 활동거리들이 사라지며 이에 따라 교류의 목적도 흐려지게 됩니다. 많은 교류활동들이 이런 면에서 지속되지 못하고 흐지부지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통의 관심사, 주제 의식, 이야깃거리가 있으면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 계속 제시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류활동을 주도하는 선생님들의 아이디어와 경험이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했을 때, 앞서 말씀 드린 중국이나 일본 등 바다공동체 국가들과의 교류 프로젝트는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아가 세계시민교육의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료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은 말

저는 세계시민교육에서 중요한 것이 '참여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사람들과 연대하고 서로의 문제를 알고 이에 공감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 세계시민이라고 생각하기에 타인에 대한 관심과 공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배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배우고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해 줄 것은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끌어주고, 열어주고, 경험의 장에 학생들을 초청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유의미한 활동들에 참여하고 싶어하지만 경험이 부족하고 정보가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주변에 눈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기도 하고요. 이 때 선생님의 역할은 스스로 보기 어려운 학생들이 눈을 돌려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참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위해서는 교사들이 먼저 경험이 많아야 합니다. 이걸 일로 접근하면 상당히 어렵죠. 주말을 빼서 어딘가를 찾아 다니고 참여해야 하고, 인맥도 쌓아야 하고. 그런데 정말 어떤 세계시민교육적 활동을 기획한다고 하면,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지역의 자원들을 잘 찾아보고 네트워크를 쌓아볼 것을 꼭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역 기반의 민간 단체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관이 쌓은 노하우와 창의적인 콘텐츠, 아이디어를 비롯하여 사회를 보는 비

관적 시각이나 따뜻한 관심도 교사와 학생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점이기도 하고요. 학생들이 매일 보는 학교의 선생님이 아닌 지역 단체의 전문가 선생님들로부터 강의를 듣고 활동을 함께 할 때 더 흥미를 가지기도 하고, 진지하게 듣고 배우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렇듯 학생들이 받을 달고 있는 지역 사회와의 연계성을 찾아 실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단체나 기관과 협력하여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모색해본다면 보다 풍성하고 지속 가능한 활동을 기획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계시민교육의 핵심이 ‘공감’이라고 믿어요. 사람에 대한 측은지심, 인간과 자연에 대한 관심과 공감이 바탕이 된 활동이야말로 진짜 세계시민교육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러한 공감능력이 길러져야 학생들의 인식의 성장과 확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시선에서 사회적 문제 바라보기

이흥순 선생님은 세계시민교육 시도선도교사(인천, 2015)로서 인천청일초등학교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세계시민교육이란 우리가 느끼는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이나 불평등과 같은 문제들은 우리는 물론이고 세계 각지에서 공통으로 경험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과서에 나온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을 아이들이 '진짜'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소통과 토의가 있는 수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주변의 다양한 생활 공간들에 의미와 이야기를 부여해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는 것을 시도해오고 있습니다.

1 나에게 세계시민교육이란?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는 과정

저는 세계시민교육이란 우리가 느끼는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환경문제나 불평등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세계가 당면한 문제이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보려는 자세를 갖고,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보는 과정이 바로 세계시민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세계시민교육, 혹은 국제이해교육을 배우면서 아이들과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려고 했을 때 시도했던 것은 세계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었어요. 세계의 지리와 역사를 가르치고 유엔 등의 국제기구 및 단체에 대해 알려주는 것으로 시작하였지요. 아이들이 국제사회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업을 지속해 나가다

보니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하고 재미없어한다는 것을 교사인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아무래도 초등학생들이다 보니 세계 어느 나라에 어떤 강이 있고, 무슨 사막이 있고 하는 지식 중심의 수업이 아이들의 흥미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았죠. 무엇보다 아이들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느끼지 못 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국제 단체에 대해 설명을 해 주어도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진로나 직업으로 흥미를 느끼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까 하고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 보면서 자료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고민을 좀 많이 했지요.

그러던 중에 문득 생각을 했어요. 세계시민교육에서 다루는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인류가 직면한 전지구적 문제나 이슈들을 함께 해결해나가는 것인데, 이걸 우리 아이들과도 한 번 해 보면 어떨까 하고요. 전지구적 문제라고 하면 뭔가 아이들에게 어렵고 먼 이야기 같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이 곧 이런 전지구적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이니까요. 아이들 생활 속의 크고 작은 문제들, 예를 들면 에너지나 물과 같은 자원·환경의 문제들을 세계와 연결시켜 생각해 보고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식으로 아이들과 세계시민교육 수업을 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이런 문제들은 사회나 도덕, 국어 같은 수업에서 많이 다룰 수 있는 주제거든요. 교과서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교과서에서 출발하여 삶의 문제로 인식하기

교과서를 보면 주제에 따른 사회적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떤 주제는 많은 지면이 할애되어 비중 있게 다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주제는 한 권에 아주 작게 소개되어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고요. 교과서 내의 이런 사회적 문제들을 몇 개 선정해서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토론해보는 방식으로 수업을 시작했어요. 토의·토론 수업을 할 때 새로운 주제들을 가지고 와서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아이들이 매일 접하는 교과서에 나온 문제들로 수업을 하기로 했어요. 사실 교과서에 이런 주제나 사회적 문제들이 나와있다고는 해도 아이들이 이걸 진짜 어떤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별개의 차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교과서에서는 이미 세계시민교육적인 내용들을 다 소개하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화하느냐 하는 것은 아이들과 선생님의 몫이에요.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나와 큰 상관없이 교과서 내의 지식으로만 존재하는)으로 남을 수도 있지만, 이걸 잘 활용하면 아이들이 이런 문제를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의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이런 수업 방식으로 택한 것이 포럼식 토의였어요. 제가 가르치는 6학년 사회과와 주로 접목해서 수업을 했고요. 포럼식 토의는 아이들 중에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이 아이들이 미리 해당 주제에 대한 조사와 탐구를 해 오고, 그걸 바탕으로 토의를 진행하는 형태의 수업이에요. 포럼식 토의를 생각한 것은 물론 다양한 방식의 토의가 있겠지만, 이걸 시작할 당시에 세계교



육포럼이라는 큰 행사(2015년 5월)가 한국, 특히 제가 있는 인천에서 열렸어요. 아이들에게 ‘이런 세계교육포럼처럼 우리도 수업에서 포럼을 한번 해 보자’라고 좀 가볍지만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해본 것이예요.

6학년 사회과에 여러 사회적 문제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우포늪 사례 (습지 개발과 환경보전 문제), 시화지구 간척사업(간척지와 간척지 주변 지역 문제), 북한이탈주민과의 더불어 사는 삶, 이웃 나라와의 협력이 필요한 문제 등이 있어요. 어떤 사례는 아이들이 멀게 느끼는 반면 몇몇 사례는 좀 더 가까이 느끼기도 하는데 효과적인 면에서 아이들이 가깝게 느끼는 소재를 활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웃 나라와의 협력이 필요한 문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의를 하려면 아이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소재인 ‘황사’를 소재로 토의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아이들이 황사에 관심이 많아요. 황사가 불면 체육도 못 하고, 나가서 놀지도 못 하거든요. 황사 때문에 이번 주 내내 체육수업 한 번도 못 했다고 아이들이 되게 아쉬워하고 속상해하고 그래요. 막 짜증내는 아이들도 많고요. 그럼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황사로 인해 우리가 겪는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먼저 이야기하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생각해보고, 조사해 온 전문가 아이들이 발표하고, 이걸 토대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고요.



사실 교과서에 나오는 주제나 사회문제들은 이름부터 너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럼 아이들이 어려운 용어나 이름 때문에 벌써 흥미를 잃는 것이지요. 그래서 최대한 아이들이 삶에서 느끼는 문제들에서 출발하려고 노력

해요. 수업 마지막에는 주제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을 아이들이 도출해내서 발표하는데 사실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결과로서의 해결 방안이 고차원적이라든지 매우 현실적이라든지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토론의 결과보다는 아이들이 이런 문제를 진짜 문제로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토론하면서 점점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냥 교과서 내에 몇 문장 써 있는 사회적 문제들을 읽었을 때, 혹은 설명으로 들었을 때는 그 문제 안에 잘 들어가지 않거든요. 대부분이 그냥 ‘그러려니’ 하는 정도이지요. 그런데 토론할 때 아이들을 유심히 보면 굉장히 집중하고 감정이 이입되는 경우도 많고 상당히 진지해요. 자기가 전문가 집단이 되면 조사나 공부도 열심히 해 오고요.

포럼식 토의를 하게 되면 전문가 집단이 된 아이들이 여러 모둠을 다니면서 친구들의 토론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이런 것을 하면 아이들이 성취감도 느끼고 되게 재미있어해요. 처음에는 이런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어렵게 생각해서 싫어하거나 자기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안 하려고 했는데, 횃수를 거듭하다 보니 점점 주제로 다루는 문제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게 눈에 보였어요. 처음에는 조사해오는 것도 숙제로 여겨서 싫어했는데, 하다 보니 토의하는 과정에서도 재미를 느끼고 아이들이 직접 발표하고 친구들의 토의를 진행하는 것에 흥미를 붙이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부터도 아이들이 토론하고 발표하는 내용에 많이 집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토의하는 과정 속에서 경험하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

이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관심 있는 아이들 또는 주도적이거나 목소리 큰 아이들을 중심으로 의견이 좌우되었는데, 계속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아이들이 모둠 내에서 의사소통 하는 방식이 변화되었어요. 처음에는 잘 하는 아이들 중심으로 “야, 그냥 이거 해” 하던 방식에서 “이건 어떨까, 이렇게 해 볼까” 하는 식으로 서로 ‘소통’이 활발해진 것이지요. 그런데 이걸 몇 달 동안 계속 해 왔을 때의 변화예요. 한 두 번에 이런 변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지요. 결과로서의 해결 방안도 처음보다는 더 생각하고 고민한 흔적이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갑자기 높은 수준의 해결 방안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아마 교사가 주입한 것이 아닐까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수업에서는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토의수업을 하면서 특히 몇몇 아이들은 수업에서 다룬 내용을 자신들의 문제로 절실히 느낀다는 걸 확인할 때가 있어요. 학교에서 쓰레기를 버릴 때 토의시간에서 다룬 내용(환경 문제)을 이야기하며 조목조목 따져보기도 하고, 수업이 끝나고도 계속 토의에서 했던 이야기를 끝내지 못 하는 걸 보기도 하고요. 보통 교과서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이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웃음). 이런 걸 보면 교과서의 내용들이 아이들에게 ‘살아 있는’ 무언가로 다가갈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교육적 효과를 가질 수는 없겠지만, 이런 효과가 몇몇 아이들에서 출발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모두 같은 효과를 얻을 거라고 기

대하는 것은 선생님의 과한 욕심이겠지요.

토의·토론 수업: 좋지만 어려운, 어렵지만 좋은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공감하실 텐데, 세계시민교육 같은 가치 지향적 교육을 할 때 아이들의 생각을 충분히 나누고 소통하면서 스스로 방법도 찾아보는 토의·토론 수업이 상당히 효과가 있고 교육적으로 도움도 많이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선 토의시간도 최소 2시간은 확보를 해야 하고, 앞뒤로 1~2시간도 준비나 기초 교육(토론할 때 주의점, 역할 분담 등) 때문에 필요하고, 또 선생님들이 미리 준비하고 아이들을 연습시키는 등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일반 수업과 비교해서 두 배 이상의 시간이 든다고 볼 수 있지요. 초등학생이니까 몇 개 수업을 붙여서 진행을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진도예요. 교과서에서 다루어야 할 양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형식의 수업을 하면 진도를 맞추는 것이 어려워지는데, 선생님들은 진도를 다 못 나갈 경우 죄책감을 느낄 정도로 진도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사실 사회과를 예로 들어 보면, 가르쳐야 할 양이 너무 많다 보니 아이들이 교과에 종종 흥미를 잃어요. 아이들은 사회에서 나오는 지식의 양에 압도당하는 게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다 외워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사실 어른들도 세계 지리, 역사 이런 것 모두 다 아는 건 아닌데 아이들은 나라 이름, 대륙의 특징과 같은 지식적인 부분이 주가 되는 사회 수업을 ‘암기 수업’

이라고 생각해서 고학년이 될수록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배우는 양은 많은데, 이걸 아이들이 진짜 자기 문제로 인식하거나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심각하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냥 ‘외워야 할 대상’이 되어버리면 그 때부터 아이들에게 의미있게 다가가기 어려워지니까요.

제가 한 해 동안 아이들과 토의 수업을 계속 해오다 보니 이런 방식이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기에 좋은 방식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세계시민교육을 ‘세계’에 대해 배우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주변의 문제들에서 출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교과서 내의 사회적 문제들과 아이들 삶을 연결시켜가면 바로 그 과정이 세계시민교육의 실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구나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책임감이나 공감의 부분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세계 시민’으로서 스스로를 인지할 수 있게 할 거란 생각도 들고요.

세계시민교육의 가능성 찾기

'장소성'에 초점을 맞춘 세계시민교육 실천 가능성

제가 교직생활을 시작한지 2년쯤 되었을 때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의 연수를 통해서 처음 '국제이해교육'이란 분야를 접하게 되었어요. 그 뒤로 계속 관심을 두고 연수도 더 듣고, 공부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업에서 아이들과 실천도 해 보았는데 그러다 보니 제 수업의 많은 부분을 국제이해교육이나 세계시민교육이 차지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심화 연수 중 말레이시아의 페낭(Penang)에 가서 국제이해교육, 특히 다양성에 초점을 둔 현장 연구의 기회를 가졌거든요. 페낭은 문화적 다양성을 도시 곳곳에서 느낄 수 있는 특징을 가진 곳이에요. 다양한 이주민 집단이 도시에 정착하면서 다양한 종류와 층위의 문화, 종교적 특징이 도시 전반에 퍼져있어요. 이 도시에서 연수를 받으면서, 문화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이해(다양성 존중 등)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지요.

이 경험 이후 제가 있는 지역에서 이런 교육을 시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인천도 말레이시아 페낭처럼 항구도시이고, 국제적 교류와 교역이 활발히 일어난 곳이기 때문에 국제화에 대한 이해나 문화적 다양성을 찾아볼 수 있는 장소가 곳곳에 있으니깐요. 이런 점에서 연수의 경험을 살려 제가 있는 곳에서 문화다양성을 활용한 세계시민교육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제가 인천 토박이인데, 오랜 시간 인천에 살면서도 어떤 의미를 가진 '장소'로 인천을 인식하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인천 개항장은 역사·문화적으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 아이들과 이 곳을 현장체험학습으로 가긴 했어도 그 이상의 의미를 연결시키지 못 했다는 생각이 든 것이지요. 인천 개항장은 문호 개방과 국제화에 있어 많은 역할을 한 곳이고, 그에 따른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공존하고 있는 간문화적 상황이 존재하는 장소이므로 이런 부분을 연결시키면 아이들이 그 장소에서 문화간 이해 또는 문화와 역사의 인식 등을 경험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이들도 저처럼 인천에 살고 있고 인천 개항장에 대해 들어보거나 가 본 적이 있긴 하지만 '관광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역사체험코스 등이 잘 만들어져서 선생님들이 요즘 아이들과 이 코스를 돌며 현장체험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저도 그렇게 몇 번 진행을 한 적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잘 활용하면 세계시민교육/국제이해교육을 실천하는 좋은 현장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최근에 와서 하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 보니, '장소성'이라는 개념에 대해 알 수 있

었어요. 학자들에 따르면 공간이란 것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을 담는 개념인 반면 이런 공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면 '장소'가 된다고 해요. 인천 개항장의 경우 이런 '장소성'을 가진 곳이 될 수 있어요. 세계화나 국제화의 시발점이 된 장소로서의 의미, 일본과 러시아, 중국 등 다양한 국가의 문화와 역사적 흔적이 남아 있는 장소로서의 의미 등으로 환경·물리적 차원에서 말이지요.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 아이들이랑 개항장에 가서 청·일조계지 경계 계단 같은 곳을 보여줬어요. 그걸 경계로 일본과 중국이 나뉘는 것으로 보게 하고, 1883년 개항 이후 130여 년 간의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는 현장도 보게 하고, 청·일·서양의 건축양식이 함께 남아있는 모습도 보게 하면 아이들이 먼저 신기해해요. 차이나타운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남아 있기도 하고요. 특히 청·일조계지 경계 계단은 그걸 경계로 일본풍의 근대화된 건물양식과 청나라풍의 건물 양식이 확연히 나뉘거든요. 이걸 직접 보면 아이들의 반응은 먼저 신기하고 재미있다는 것이고 왜 이런 것이 생겼을까 이야기하면 흥미롭게 들어요.

그 외에도 다양한 영사관 터(러시아, 영국 등), 답동성당, 내리교회, 공화춘 등 다양한 장소들과 건축양식을 보면서 이런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왜 이 곳에 남아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도 아이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있는 공간에서, 역사를 통해 찾아볼 수 있는 세계와의 접점의 현장들, 그리고 국제화의 경험과 흔적들을 보면서 '세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요즘 들어 '다문화', '문화 다양성' 등이 많

이 대두되는데, 이런 요소들은 이미 백 년 전부터 우리가 사는 공간 안에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인천개항장을 체험학습을 위한 공간으로만 볼 수도 있지만, 조금 새로운 관점으로 보면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장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들에게 개항장 하면 여전히 차이나타운, 데이트 코스, 유명한 관광지, 닭 강정 먹는 곳 (웃음) 등으로만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조금만 포커스를 달리 하면 역사·문화·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많은 선생님들께서 현장체험학습을 좋은 교육의 기회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계세요. 단순히 박물관 다녀오고 끝나는 식이 아니라 어떤 곳에 가든 그 곳에 의미를 부여해서 장소화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노인 문화회관에 간다고 할 경우 그냥 다녀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그 곳에 가서 어르신들에게 전통문화를 배우고 동시에 아이들은 문화 공연을 해서 어르신들과 교류하는 등 의미를 더해서 더 풍성한 교육의 기회로 삼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세계시민교육도 학교가 있는 지역의 어떤 장소들을 활용해서 재구성하면 더 의미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요.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

앞서 말씀 드린 토론 수업, 체험형 수업 같은 시도를 하려고 할 때 한계를 좀 많이 경험해요. 먼저 아이들과 현장에 나가는 기회를 자주 가지면 여러

가지로 좋고 효과적인데,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의 문제 등이 있어서 학교나 학부모님 허락을 받는 과정도 복잡하고요. 교사들이 의지가 있어도 혹시 모를 사고의 위험성 등에 대한 부분이 늘 먼저 고려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 절차 등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다가도 주춤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 간소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하고, 또 의지 있는 선생님들을 장려해주고 북돋아 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계시민교육이 아무래도 많이 확대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토론 수업 등을 준비할 때 자료를 구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사회적 문제들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언어와 방식으로 설명해주기 위해 자료를 찾다 보면 생각 외로 구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선생님들이 직접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온라인 사이트 등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이 실제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화된 자료 등이 많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지도안을 잘 짠다 하더라도 이걸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실제 수업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료들을 서로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힘들더라도 토의·토론 수업을 추천하고 싶어요. 혹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교과서 안에 지식으로만 있는 문제들을 끄집어 내어 아이들과 친해지게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스스로 주변에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길러지거든요. 또 지도상의 한 지점으로만 존재하는 곳에 문화나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장소화하고, 그 과정 속에 아이들이 참여하게 된다면 더욱 현장감 있는 세계시민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나’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공감과 이해가 꽃피게 되고, 그것은 추운 겨울,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우는 핫팩의 역할을 해 줄 거예요”



지구인과 소통하며 살아가기

박범철 선생님은 세계시민교육 시도선도교사(서울, 2015)로서 현재 경문고등학교에서 국어 교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세계시민교육 실천에 있어 우리 안의 세계, 우리 안의 다양성을 먼저 바라보고 지역에서 만나는 다양한 주민들(이주민, 난민 등)과의 평화롭고 조화로운 소통과 상생을 꿈꿉니다. 이 꿈은 학생들과의 다양한 참여 활동으로 현실이 되어 가고 있지요. 이주민과 선주민의 구분 대신,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야말로 세계시민이 지향해야 할, 함께 만들어가야 할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이러한 생각이 학생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지역 기관들과 함께 하며 생각을 넘어서 공감으로, 함께 하는 참여로, 끈끈한 연대로, 그리고 크고 작은 변화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나에게 세계시민교육이란?

인권감수성, 세계시민교육의 시작이자 핵심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교육목표는 21세기 민족과 인류사회를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육성입니다.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학교의 교육지표나 교육의 기본 방향에 글로벌 시민 양성 또는 국제적 안목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 등의 요소가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웃음). 그런데 글로벌 인재라는 것이 마치 반기문 UN사무총장이나 김용 세계은행 총재와 같이 세계적인 기관의 수장이 되어 국위선양을 하거나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야만 글로벌 인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자체가 나쁘지는 않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세계시민·세계시민의식은 조금 다릅니다. 반드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리더가 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터키 해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어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준 세 살배기 쿠르드계 시리아 난민 아일란 쿠르디의

2

우리안의 세계 보기

모습을 취재하여 난민들의 소리 없는 비명을 알린 닐류페르 데미르 기자와 같은 사람들이 지닌 감수성이야말로 세계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인간 존엄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세계시민교육을 통해서 나와 관련을 맺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러한 인권 감수성을 증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람직한 세계시민교육이고 세계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출발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미국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관심을 통해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능력,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우위를 두지 않는 민주시민의식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 세계시민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시민교육은 세계에서만?

세계시민교육은 지속가능발전교육 등 여러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는 먼저 우리 학교가 있는 동작구(서울)에 주목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해 드릴게요. 우리 학교에 경찰분이 한번 오셨어요. 왜 오셨는지 물어보니 보통 다문화 가정 학생이라고 하지요? 우리 학교에 베트남 어머니를 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의 신상에 대해 알고 싶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작구 이주민 숫자가 만 이천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대부분이 초등학생인데 아마 이 아이들이 자라면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겠지요. 올해에 저희 반에도 콩고 난민 학생이 있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안의 세계시민적 요소들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서 말씀 드렸듯이 우리 학교가 있는 동작구 안에 다양한 형태의 이주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결혼 이주

여성, 이주 노동자 등……. 그래서 저에게 있어 세계시민교육은 외국에 나가서 국위선양을 하거나 훌륭한 인물이 되어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이미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세계와 다양성을 보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 지역 안의 이주민들과 한국에 살고 있는 선주민들이 어떻게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수용하며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권의 틀에서 바라보다

제가 우리 안의 다양성, 세계성을 다루면서 가장 초점을 맞춘 것은 인권입니다. 시작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한국에 온 이주민들은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일을 하러 한국에 오든, 결혼을 해서 한국에 오든 한국에 ‘사람’들이 오는 것인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는 인식의 틀은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지위, 사회문화적 배경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이주노동자나 난민,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서양인들에게도 적용되지요. 영어학원 선생님들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백인 선생님들인 것도 ‘백인’들이 가진 경제적 지위나 사회문화적 배경이 작용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처럼 우리는 차별이라고 인식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을 볼 때 인종·경제·문화적 배경이나 기준을 가지고 이에 따른 선입견, 편견 등이 작용하곤 해요. 그래서 우리 안의 이주민들을 볼 때 그 사람이 아시아에서 온 이주노동

자나 결혼이주여성이든, 아프리카 출신 난민이든, 인권이란 틀에서 이들을 바라보면 ‘사람’으로 먼저 보일 거라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가진 기본적 권리에 대한 존중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보다 소수인 사람들의 인간적 권리를 인식하고 존중해주는 것이 기본이 되면 그것이 세계시민교육이든, 다문화 인권교육이든, 우리 사회의 차별적 요소를 제거해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한국어교재를 본 적이 있는데, 교재에 사업주나 한국인들은 노동자들에게 반말을 하고 노동자들은 존댓말로 대답을 하는 것이 나와요. 모든 교재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걸 보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이나 인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이렇듯 이주민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이들과 맺고 있는 관계가 매우 수직적인 부분이 많지요.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한 인식과 수평적 사고를 먼저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느끼고 인지하는 ‘감수성’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생각을 넘어 공감과 행동으로

학생·학부모·지역 단체들과 함께 하는 동아리 활동

우리 학교는 지역사회의 다문화 관련 기관과 연계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다문화이해교육 동아리인 '따봉(따뜻한 봉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이해 및 인식개선을 위한 동아리인데 주로 주중에는 학교 도서관에서 월 2회 가량 다문화 교육 전문가·활동가들을 초청해 다문화 이해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고, 주말에는 체험활동 또는 자원봉사의 형태로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 여성, 국제난민, 북한이탈주민 등과의 직접적인 만남의 기회를 매달 2회 이상 가져 왔습니다. 다문화 이해 수업에서는 다문화 인권교육을 중심으로 인권 감수성, 반 차별 교육 등을 지역 내 기관들 및 전문가 선생님들을 통해 듣고, 주말 활동은 결혼 이주 여성이나 이주 노동자, 난민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내용이 난민, 이주 여성, 이주노동자 등의 주제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관심에 따라 일부를 선택해 참여

하기도 하고, 전부 다 참석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처음 이 활동을 시작할 때는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보다는 호기심 차원에서 참여한 학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은 야간 자기 주도 학습 시간에 공부 대신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들을 듣는 것에 관심이 있어 오기도 하고, 입시에 필요한 활동을 하기 위해 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런데 몇 년간 이 활동을 지속하다 보니 이 분야에 진지하게 관심을 갖게 된 학생들이 많아졌어요. 실제로 동아리 활동을 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현실을 접하게 되면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된 친구도 있고, 동아리 활동 외에 자체적으로 재미있는 일들을 기획해 내는 친구들도 있고요. 대략적으로 1년의 활동횟수를 세어보니 약 70회 정도 되는데, 이 70번을 개근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입시라는 제도 하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입시에 필요한 활동,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열린 마음으로 보려고 해요. 어떤 연유에서든 이런 활동에 참여해보면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경험을 하다 보면 진짜 관심이 생기기도 하고, 관점이 변하기도 할 테니까요. 다양한 이유로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1년에 100~200명은 되는 것 같아요. 동아리지만 굉장히 많은 수이죠.

이 활동이 처음에 봉사활동으로 시작을 했는데, 3년 활동하고 나서 이제

는 ‘봉사’라는 말을 빼고 대신 ‘자원 활동’이라고 이름 붙이게 되었어요. 학생들이 하는 활동이 누가 누구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하는 활동이라는 것을 강조하면, 학생들도 스스로 ‘자원 활동가’라는 인식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따라서 봉사시간을 주지 않는데, 학생들도 이런 취지를 이해하니까 다 받아들이고요. 봉사 활동으로서의 접근을 지양하다 보니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의 영역도 오히려 넓어지는 것 같아요. 활동을 같이 하는 기관에서도 봉사 활동이라고 하면 일회성의 단순한 활동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피켓 들고 몇 시간 서 있는 활동처럼요. 그런데 자원 활동으로 인식을 바꾸니 오히려 할 수 있는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내용도 깊어지는 것을 경험했죠.

저희가 같이 일하고 있는 기관이 꽤 많은데요, 지역 내 기관인 ‘동작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가장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고, ‘피난처’라는 난민NGO 단체와도 지속적으로 함께 하고 있어요. 또 ‘지구인의 정류장’이라는 이주노동자 단체, 이주민 방송단체인 MWTV, 아시아미디어컬처팩토리(AMC)와도 여러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같이 해 오고 있어요. 동작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학교와 가까워서 지속적으로 자주 활동을 하기에 좋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정기적 모임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계속해 오고 있고요. ‘피난처’의 경우 프로그램을 계속 같이 해 오다 보니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랑 먼저 해 보고 다른 학교와 하는 식으로 협력 관계가 잘 되어 있어요. ‘지구인의 정류장’이란 곳은 제가 방점을 두고 있는 인권에 기반

한 다문화 이해·감수성 증진이란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좋은 배움의 기회를 준 곳이에요. 이주 노동자분들이 인권 침해를 받았을 때 이에 대처하기 위한 미디어 교육 등을 이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이주 문제, 다문화 이슈에 대해 생각해 보고 경험해 볼 수 있었어요. 이주민 방송 MWTV의 경우 방송 기관이다 보니 방송 진행 등에 도움을 줄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이럴 때 우리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학생들이 방송이나 영화라는 소재를 매력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기관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미디어 영상학교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같이 영화도 찍고, 또 이를 통해 이주민들과의 만남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쓰는 아시아미디어컬처팩토리(AMC)라는 곳과도 접하게 되고, 이 단체에서 만든 영화도 보면서 학생들이 한 단계 더 깊이 다문화적 이슈들에 대해 생각하고 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실제로, 학생들이 파키스탄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파키>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파키스탄 노동자들은 이주민 노동자들 중에서도 특히 차별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슬람 문화권인 점, 남자들만 고용협약을 맺고 한국에 와 있는 점 등이 차별 요소가 될 수 있겠는데 미디어나 주류 문화에서 파키스탄이나 이슬람에 대해 부정적인 부분을 자주 다루다 보니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학생들이 직접 노동자들을 만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학생들이 이주 노동자들을 만나는 것은 결혼 이주 여성들을 만나고 활동하는 것과는 또 다른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영화라는 매개를

통하면 중간 지점에서 만나게 되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었어요. 특히 영화를 통해 현실을 바라보고, '왜?'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게 좋았습니다.

이처럼 여러 기관과 함께 활동을 해 오고 있는데, 함께 하는 시간과 관계가 지속되다 보니 의미 있는 일들을 확장해 나갈 수 있었어요. 첫 해에는 설거지만 했는데 3년 차쯤 되다 보니 영화제를 같이 주관하진 않아도 행사에서 저희 학생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농담이지만 저희가 안 하면 행사 진행이 안 될 정도라고 하실 만큼 관계가 견고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일회성, 행사성이 아닌 무언가를 같이 만들어나가는 공동체적 관계가 형성된 것이지요. 학생들도 그 안에서 주인의식이나 책임감을 더 강하게 느끼고 거기서 오는 보람이나 즐거움도 훨씬 커졌고요.

관계의 힘, 시간의 힘으로 활동 확장하기: 이주민 영화 제작 도전기

학생들이 이 활동을 하며 파키스탄 남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인 정혜실 선생님이란 분을 인터뷰 할 기회가 있었어요. 인터뷰를 통해 이 분의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이의 아버지가 파키스탄 분이시니 우리가 흔히 다문화 학생이라고 부르는 학생인 거죠. 하루는 이 아이의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아이가 한국어가 서툴러서 수업시간에 집중을 못 하고 엎드려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런데 사실 이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어머니도 한국분이시고) 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거든요. 엎드

려 있던 이유는 수업이 재미가 없어서인데 선생님이 받아들일 때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수업을 못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학생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영화로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문화에 대한 고정화된 인식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자고는 했지만 사실 쉬운 작업이 아니지요. 영화를 만들려면 먼저 시나리오가 있어야 할 텐데 학생들이 시나리오를 바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봤어요. 서강대 교육대학원에서 국어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제 후배 장동찬 선생님에게 아이들 대상으로 6번 정도 글쓰기 지도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방과 후에 글쓰기 수업을 했어요. 인터뷰에서 나왔던 정보를 문학적 글쓰기로 전환한 것이지요. 두 달 정도 이렇게 진행하고 시나리오를 완성했어요. 이 시나리오로 영화를 만들어야 할 텐데 이때부터는 정말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했지요. 저희가 MWTV(이주민방송)와 계속 일을 해 오고 있었으니까 이 단체의 제 9회 이주민영화제에 우리가 이런 작품을 출품하려고 하니 도와달라고 지원요청을 했어요. 프로듀서를 한 명 붙여달라든지, 영상 기기를 다루는 교육을 해 달라든지. 우리 학생들이 연출, 감독, 배우 이런 것은 다 했지만 영화화하는 과정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이 기관에서 해줬어요. 이렇게 학생들이 15분 분량의 인권 영화를 만들었어요.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을 문학 작품으로 만들고, 리딩을 하고 연기를 하고 편집을 하는 과

정을 전부 거쳐 영화를 만드는 것을 해 보니 정말 책 한 권을 낼 수 있을 정도의 자료가 쌓였어요. 이런 과정을 거치며 학생들의 다문화·인권·다양성 감수성이 많이 증진되었을 거라 생각해요.

안타깝게도 이주민영화제에서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웃음) 대학에서 상영회를 열고,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교내 상영회도 했어요. 이런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직접 생각하고 탐구하면서 다문화적 상황을 깊이 인식할 수 있었던 게 정말 의미 있었어요. 학생들이 결국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문화’라는 어떤 고정화된 인식이 편견을 낳게 되는데, 이런 편견을 견어내고 인식을 새롭게 하면 ‘사람’이 보이고 결국 평등한 인간에 대해 인지하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냥 말로 설명했을 때는 쉽게 학생들이 될 수 없는데, 학생들이 스스로 과정을 구성해가며 이런 인식에 이르렀다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 동안 쌓인 시간과 관계성의 힘이라고 봅니다.

엄마와 함께 하는 동아리 활동?: 어머니들, 활동의 주체로 서다

저희 동아리 활동에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함께 하고 있다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실제로 학부모님들께서 지난 몇 해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세요. 사실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저에게도 놀라운 경험이에요. 첫 해에는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들 활동하는 데 함께 하는 걸로 오셨다가 이제 아이들은 졸업하고 떠났는데도 어머니들은 떠나질 못 하고 계속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웃음). 처음에는 그냥 아이들이 하는 활동이니까 잠시 보러만 오셨는데,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느끼신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들이 난민 NGO인 ‘피난처’와 같이 ‘맘쉐프’라는 활동을 하셨어요. 아프리카에서 온 난민분들 중 남자분들은 노동력이라도 제공을 해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데, 여성분들은 언어도 제약이 있고(많은 아프리카 출신 난민 분들이 불어권 이에요) 여러 상황 상 거의 활동을 못 하세요. 그래서 ‘피난처’에서 우리 어머니들이랑 여성 난민 분들이 같이 아프리카 음식을 배우고 만들면서 이야기도 하고 관계형성도 하는 ‘맘쉐프’ 프로그램을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했는데 횟수를 거듭하면서 관계가 쌓이고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만들었던 요리의 레시피들을 모아서 요리책을 만들기도 하고, 아프리카의 노래나 춤도 배우는 시간을 갖기도 하면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죠. 그러다가 이제는 영등포 하자센터에서 여는 마켓에 부스를 차려서 참여할 정도로 대중적인 프로그램이 되었어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크게 확장이 되고 참여가 활성화된 사례였죠.

우리 어머니들이 농담 삼아 아이들이 다 대학가서 이제 외롭고 심심한데 좋은 일자리가 생겨서 좋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의미 있는 일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어머니들이 하셨던 프로그램 중 ‘친정언니’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주 여성들이 아무래도 시댁이나 고부관계에 있어 어려움을 겪다 보니 어머니들께서 이 분들에게 친정 언니처럼 편한 관계가 되어주자고 생각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 어머니들과 초등학교 입학연령의 자녀를 둔 이주 여성들이 한 달에 두 번씩 총 스무 번을 만났어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학생들과 수학여행을 간 사이에 어머니들끼리 마을 사업을 조직하신 거예요. 이주 여성분들이랑 연극을 보고, 연극배우를 섭외해 식사하고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사업을 기획해서 동작구청에 신청해 예산 지원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사업계획서를 내고 연극배우를 섭외하고 같이 연극을 보는 등의 활동들은 어머니들이 자발적으로 하신 것이예요. 연극을 볼 동안 이주여성들의 아동들은 경문고 학생들이 놀아주면서 돌봐주고요. 이걸 보면서 이런 것이 진짜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저도 처음 학부모님과 함께 하는 활동을 시작할 때 고민되고 걱정되는 부분이 꽤 있었어요. 치맛바람이라고 하나요? 이런 식으로 흐르면 어쩌나 하는 우려도 솔직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횡수를 거듭하고 시간이 쌓이다 보니 어머니들과의 신뢰관계도 구축되고, 어머니와 아이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학교가 지역의 이주민 및 다양한 주민들과 만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해 주면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충분히 유의미한 활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잠재적 교육과정이 발현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활동들은 교사가 기획하거나 끄집어낼 수 없는 단계의 것들이거든요. 교사의 역할은 처음 단계에서 이런 분야나 이슈에 대해 소개하고 초대하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소나 나눔의 장을 마련해주고 지지해주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 분들이 스스로 다문화 교육 전문가가 되는 것이거든요.

교육 과정으로의 확대

활동 중심의 동아리 활동을 해 오면서 학교에서 할 수 있을 만한 프로그램, 교육과정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내용들로 확장해가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영화 만들기를 하면서 시나리오 작업을 할 때 어떤 가능성을 보게 되었어요. 현장에서의 활동(인터뷰)을 문학 작품화하는 과정(시나리오)이 정말 좋은 문학 수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4개의 답 중 정답을 찾는 교육의 형태가 국어(문학)수업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데, 학생들이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그걸 영화나 연극의 형태로 바꾸어보는 활동을 하며 이런 형식의 활동이 국어 교육의 한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학생들이 시나리오를 쓰며 수십번의 수정 과정을 거쳤어요. 배우들과 대화하면서 고치고, 퇴고하고, 또 수정하고……. 이렇게 시나리오를 다 쓴 뒤 학생들이 이 과정을 통해 경험한 자신의 생각의 변화에 대해 글을 썼어요. 제가 그 글들을 읽으며 정답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 번 깨달았고, 나아가 이런 과정이야말로 학교의 어떤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올해에는 이 활동이 동아리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2학년 학생 700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확장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시간을 활용해서 월 1회, 수요일 7-8교시에 전교생 대상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이 활동도 하나의 틀로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를 다양화해서 우리 마을과 연계된 자원 활동, 그리고 세계 시민교육적 주제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여성, 이주민, 난민 등에 대한 활동을 선택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활동하고 싶은 주제와 범위까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학급 도서관에서 수업을 한 번 들을 수도 있고, 원하는 학생들은 현장에서 이주민들과 활동할 수 있는 범위까지 확장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 학교 안에서 출발한 학생들의 활동의 범위가 지역인 동작구, 나아가 대한민국, 더 나아가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넓어지는 거예요.

세계시민교육의 가능성, 시민에서 찾다



저는 세계시민교육에서 '시민'에 중점을 두고 싶어요. 글로벌 지도자, 리더십 이런 부분보다는 '시민'이 되기 위한 품성을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보자는 것이예요. 사실 지금처럼 대학 진학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교육 현실은 학생들로 하여금 시민적 자질에 대해 생각할 겨를을 잘 주지 않죠. 학생들과 함께 하는 활동들을 통해 동작구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그곳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 아시아 혹은 아프리카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죠. 이러한 관심은 정의, 인권, 평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에 대한 관심 및 인식과 결합됩니다. 또한 이런 관심과 인식은 곧 세계시민이 갖춰야 할 자질과도 통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에 이런 세계시민교육적 활동은 학생들이 경험을 통해 교육의 궁극적 목적을 알게 되고, 나아가 인류 보편적 가치 추구의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저는 한국의 다문화 교육 대상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에 한국 사람을 넣지 않는 것부터 차별, 인권 침해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라는 용어에 내포된 의미가 긍정적이지 않은 이유도 그렇죠. 저는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이주민들의 삶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다문화 (이해)교육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감수성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다른 문화나 배경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수용적 태도가 높을 거

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계 결혼 이주민(여성)이나 이주 노동자(남성)에 대한 인식과 미국인 또는 백인(인종이 구별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겠지요)에 대한 생각이 다르지 않도록 다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인식 개선교육을 통해서 세계시민교육의 가치를 함의할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 세계시민을 만나다

한상희 선생님은 세계시민교육 시도선도교사(제주, 2015)로서 현재 서귀중앙 여자중학교에서 사회 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학교라는 아이들 삶의 현장에서 민주주의적 참여의 경험을 하게 하고, 직접 목소리를 내고, 친구들과 연대해서 무언가를 일구어가고, 변화와 혁신의 과정에 참여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세계시민교육 실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관계지향적 활동들이 아이들의 인식과 사고의 변화,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주는 밑바탕이 된다고 선생님은 말합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이 살고 있는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 세계시민의 모델을 찾아 학생들과 나누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세계시민교육이 바로 자신들 삶과 긴밀히 연결된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길 희망합니다.

1 나에게 세계시민교육이란?

‘관계에서 시작하기

저는 세계시민교육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세계시민교육을 영어교육, 혹은 어떤 국제적인 것만을 다루거나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교육이 아닌가 오해도 하지만, 저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 세계시민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자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청소년들, 세계시민으로 안 키울 거냐”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웃고 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공부 안 하고 노는 아이들이라도 그런 마음이 없을 리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계시민이라는 것에 소외될 아이들은 없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아이들 문제 대부분이 그 아이 하나의 문제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

제들이에요. 친구들끼리의 문제, 부모와의 문제, 선생님과과의 문제 등, 관계에서의 틀어짐과 단절 등이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풀려면 관계를 먼저 풀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 선생님들도 다르지 않아요. 업무나 관계 면에서 단절되고 개별화된 부분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 어떤 유기적 관계 맺음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면에서 보면 세계시민교육에서 말하는 가치들, 함께 하고 공감하고 연대하고 문화를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운동력이 지금 우리에게, 학생이든 교사이든 절실히 필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계시민교육은 문화 만들기

저는 세계시민교육이 의미가 있으려면 여럿이 함께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개별적 교육활동이나 수업뿐 아니라 학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큰 틀의 문화를 조성해가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교사들도, 학생들도 그 문화 속에서 유기적 관계를 맺고 생각하고, 서로를 통해 배우고, 깨닫고, 또 그 속에서 변화를 함께 경험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해요. 좋은 생각이 떠오르거나 한 번 시도해보고 싶은 일들이 생기면 동료 선생님들이랑 같이 해 보는 것이지요. 얘기하면서, 서로 생각을 나누면서요. 이렇게 함께 문화를 형성하면 힘있고 의미 있는 활동들이 그 속에서 나와요.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치활동이나 참여활동 등에 있어 주제의식을 가지고 진지하게 토론하고 참여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도해 본 적이 있어요. 학생회장 선거를 해도 후보 아이들이 공약이 아니라 춤, 노래를 준비해서 아이들의 이목을 끌고 그걸 바탕으로 선출되는 걸 봤거든요. 물론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긴 해도, 학생회장 선거라는 특성에 맞게 아이들이 참여하고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어떻게 이걸 바꿀 수 있을까 함께 고민했어요. 그래서 학교의 운영이나 학교 생활에서의 공동 이슈에 관한 질문(예를 들면, ‘학교 축제에 우리들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담는 방법은?’, ‘고학년이 되면 공공연하게 학교규칙을 위반하는 문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정해서 후보 아이들이 답변을 준비하도록 제안했어요. 선거 당일 질문과 응답 형식으로 후보 학생들이 답하고, 유권자 학생들이 그걸 보며 후보자를 판단하고 투표하지는 취지였죠. 이렇게 해보니 우려와 달리 아이들이 진지하게 참여하고 학생들의 대표라는 자리에 대해 인식을 새롭게 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사례는 ‘반장협의회’라는 것인데요,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에 30분간 반장들이 모이는 시간을 가져요. 이 때 반장들은 두 가지 이야기거리를 가져와야 하는데, 한 가지는 학급 내 미담사례, 그리고 우리 학급에서 개선할 일들이에요. 미담사례를 발굴하려면 다양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과 발표하는 과정에서 알려지지 않은 아이들의 이름이 수없이 나오게 돼요. 또 학급에서 개선할 점을 발표하려면 학

급 아이들의 여론을 수렴해와야 하죠.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반장에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건의하고, 그 내용을 반장은 협의회에서 논의하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논의한 회의록은 전체 아이들과 공유해요. 사실 반장이란 게 아이들 입장에선 하기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는데, 이렇게 일종의 ‘반장연대’를 하도록 도와주니 반장들끼리도 관계가 형성되고 배움과 공감 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더라고요. 또 학급 아이들이 반장과 함께 학급의 이야깃거리를 풍성하게 찾아내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이나 학급의 자치적 운영에 대한 경험을 직접 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 반장협의회를 통해 학교 내 재미있는 이벤트나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반장협의회를 운영하다 보니 부반장들도 협의회를 만들어달라고 하 더군요. 그래서 부반장들도 함께 하게 됐죠. 왜냐하면 반장협회의 목적은 누구나 주인공, 주체가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랬더니 총무들도 달려와서 자기들도 하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총무들은 반장협의회 를 통해 나온 ‘아나바다 장터’라는 교내 행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을 하도록 정해줬어요.

저는 이런 활동들이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학교라는 아이들 삶의 현장에 서 민주주의적 참여의 경험을 하게 해 준다고 생각해요. 직접 목소리를 내 고, 친구들과 연대해서 무언가를 일구어가고, 변화와 혁신의 과정 가운데 자 리한다는 것, 그것이 곧 시민으로서의 경험이니깐요. 저는 이런 것들이 자연 스텝게 일어나고, 그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함께 만들

어가는 것, 이것이 ‘문화 만들기’라고 생각해요. 이 문화 만들기는 세계시민 교육 실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렇게 함께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것은 관계지향적 활동들을 지속해 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제가 중학교에 있어서 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청소년기 아이들에게는 ‘관계’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앞서 말씀 드 렸듯이 아이들이 가지는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관계의 단절이나 고립의 경험, 이런 것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관계지 향적 활동들은 아이들에게 인식과 사고의 변화, 아이들 인생의 방향을 끌어 주는 경험을 주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역에서 배우고 생각하는 세계시민교육

저는 세계시민교육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의 교육활동 대부분은 지역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지역의 이야기들을 발견해가는 것은 저에게도 배움이 됩니다. 지역사회는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교과서가 됩니다. 지역사회는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로 경험하고, 행간에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고, 더 나아가 아이들이 직접 살아가는 기반이 되므로 지역사회가 곧 세계시민교육의 무대가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처럼 같이 지역을 경험하고 지역 분들로부터 배우게 되면 아이들의 배움이 훨씬 풍성해지고, 저도 아이들에게 해 줄 얘기들이 많아져서 좋아요.

지역에서 배우는 평화·인권 교육: 제주4·3

저는 지역을 통한 세계시민교육을 제주4·3을 통해 실천해오고 있어요. 제주



4·3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한반도가 미국과 소련에 의해 남북으로 분단된 상황에서 발발해 7년여(1947-1954)에 걸쳐 극심한 인명 피해를 낳았던 비극적 사건이지요. 당시 세계적 냉전 체제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으로 제주지역을 뛰어넘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나아가 세계사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중 제주도민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고귀한 인명이 희생되었으며, 희생자 대부분이 무고한 민간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민간인들이 참혹하게 희생되며 평화와 인권이 철저히 유린되었다는 점과, 평화적 수단에 의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제주4·3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제주4·3이 일깨워준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학생들이 느끼고, 이를

통해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제주4·3교육을 실행해 왔어요. 제주4·3은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국가차원의 진상규명까지 이끌어 낸 사건일 뿐 아니라,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역사의 상처를 교훈 삼아 평화와 인권의 정신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제주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갈등의 평화적 해결 노력, 비폭력, 인권 존중, 합리적 의사 결정, 관용 등의 세계시민적 가치를 생생하게 전달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주 4·3을 통해 세계시민을 만나다

제주4·3은 3만여 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간 비극적 사건이지만, 이 비극적 역사 가운데서도 정의와 평화를 위해 노력한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분들을 역사를 통해 만날 수 있어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종종 제주도의 여러 마을로 답사를 갑니다. 최근에는 제주4·3 당시 ‘몰라구장’이라고 불렀던 이장님의 따님을 만나러 남원읍 신흥리 마을을 다녀왔습니다. 제주4·3 당시 토벌대는 마을 구장(현재의 이장)들에게 주민들의 성향을 물어 학살의 근거로 삼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남원읍 신흥리 김성홍 구장은 자신의 답변이 애꿎은 주민들의 희생으로 이어질 것을 알기에 무조건 ‘모른다’고 일관해 ‘몰라구장’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당시 군·경의 말에 ‘모른다’고 버티는 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죠.



현재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제주4·3 당시 15세였던 몰라구장의 따님(현재 84세)인 김복순 할머니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모슬포와 서귀포 등에 종종 침을 맞으러 갔는데 남원읍 신흥리에서 왔다는 말을 할 때마다 “혹시 몰라구장을 아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내가 몰라구장의 딸”이라고 하면 침 시술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몰라구장의 선행이 신흥리는 물론 인근 마을, 먼 마을까지 널리 전해졌다는 말이지요. 할머니께서는 몰라구장님의 이야기를 전해주시며 아버지를 통해 정의와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지켜야 할 가치이며, 이를 위해서는 용기 있는 행동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배웠다고 학생들에게 말씀해주셨고, 이 경험은 학생들에

게 교과서가 줄 수 없는 엄청난 배움을 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학생들이 제주4·3 유족들을 만나 그 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들의 나이(당시 대부분 10대 청소년 혹은 10살 미만 어린이)에 이런 사건을 겪으신 분들의 삶에 공감하고, 이러한 아픔을 극복하고 제주를 다시 아름다운 섬으로 복원한 이야기에 많은 감명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건 당시 성산포 경찰서장을 맡고 있던 독립군 출신의 문형순 서장의 이야기도 학생들에게 자주 들려줍니다. 이 분은 민간인의 학살을 독촉하는 해병대 정보참모의 명령서에 대해 ‘부당(不當)하므로 불이행(不履行)’이라는 글을 써 보내 대량 학살을 거부한 분이예요. 이 이야기를 해 준 뒤 학생들에게 저는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라면, 이 명령에 대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라는 물음을 던집니다. 학생들은 이 분의 삶을 통해, 그리고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며 정의와 용기에 대하여, 그리고 세계시민으로 정의롭고 용기 있게 행동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저는 제주4·3을 통한 시민교육을 할 때 학생들에게 제주4·3을 겪었던 분들의 삶을 그려보게 하고, 평화와 인권이 무참히 유린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심과 증오심을 내려놓은 채 용서와 화해의 숭고한 정신으로 평화와 인권을 지켜낸 유족들을 생각해보게 합니다. 마을이 파괴되고 가족을 잃은 상황에서도 깨끗하게 고향 땅을 지키고 후손들을 키워서 지금의 아름다운 섬으로 복원한 삶을 그려 보면서 시민의 역할이 무엇인지 역사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유족들은 가족의 희생에 대하여 복수, 갈등, 분

열하지 않고 제주공동체를 복원하는 데 서로 협력했습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진상규명과 인권의 신장, 도민 사회의 화합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제주4·3특별법 제정,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대통령의 공식 사과, 제주4·3국가추념일 지정 등은 제주4·3의 아픔을 극복하고 그동안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을 추구해 온 제주4·3유족과 제주도민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세계시민교육이 지향하는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은 그것이 극단적으로 위협받았을 때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제주4·3 당시 평화와 인권이 참혹하게 유린된 처절했던 상황을 잘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제주공동체를 복원해낸 유족들의 사례는 평화와 인권 교육의 진정성을 담보합니다.

세계시민교육적 관점에서 4·3교육 다시 보기

저는 최근 제주4·3교육을 세계시민교육적 관점에서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도 UN총회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 역사 교육의 흐름은 민족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평화와 인권을 주요 가치에 두고 역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보아도 우리의 역사 교육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본 나라는 독일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인데요, 독일의 경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사법적 재판이 바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독일의 학생과 시민들이 다시

문제를 제기했지요. 사법적 성찰에서 역사적 성찰로 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데요, 직접적 가해자가 아니었다라도 폭력과 부정의 앞에서 침묵하고 묵인한 사람들에 대한 비판과 성찰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시민교육의 관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역사적 과오 앞에서 방조하거나 냉담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면서요. 저는 이것이 세계시민교육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아공의 경우 독일과 달리 과거사 청산 과정에서 또 다른 분열을 막기 위해 용서와 화해라는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화합하는 노력을 기울였지요.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우분투(Ubuntu, 나는 너로 인해 존재하고, 너는 나로 인해 존재한다는 공존의 개념) 정신’도 세계시민이 가져야 할 가치를 잘 보여주고요. 이처럼 제주4.3 역시 세계시민적 관점에서 인권과 평화 수호를 위한 시민의 역할에 주안점을 두어 다양한 가치들을 ‘제주’라는 역사적, 문화적 현장을 통해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앞으로 그 활동을 지속하고 확장해나갈 계획입니다.

제주의 역사를 통해 만나는 다양한 세계시민

제주4.3 외에도 제주의 많은 역사적 경험들이 좋은 세계시민교육의 자료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제주 역사 안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 훌륭한 세계시민의 모델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시돌 목장에는 테쉬폰 주택이라는 것이 남아 있어요. 풍경이 아름답기 때문에 관광객들과 신혼부부들이 사진 촬영을 위해 찾아오곤 하는 곳이지요. 이 곳은 아일랜드 신부님인 임피제 신부님(패트

릭 제임스 맥그린치(Patrick James McGlinchey), 1973년 제주도 명예도민증을 받으며 ‘임피제’라는 이름의 한국인이 됨)이 6.25 직후 제주도에 오셔서 목초지로 개간해 목장을 일구신 곳이에요. 전쟁 이후 빈곤과 궁핍으로 허덕이던 땅에서 가난을 물리치기 위해 양과 돼지를 키우는 목장을 가꾸고, 수직물회사, 배합사료공장 등을 만들어 제주의 축산업을 비롯한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하신 분이시지요. 양로원, 요양원, 병원 등을 세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 오셨고요. 지금 86세이신데 아직 제주에 살고 계세요.

이 곳이 워낙 예쁘고 멋있어서 아이들도 가면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런 곳에 가서 신부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아이들이 집중해서 들어요. 그러면 그 곳의 건물, 풍경 등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뿐 아니라 그분의 삶을 통해 아이들이 세계시민을 만날 수 있어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세계시민’이 아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그리고 아이들이 존경하고 ‘멋있다’라고 말하는 세계시민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제주의 문화 원형 속 세계시민교육을 찾아라

저는 제주 지역의 문화 원형 속에서 세계시민교육적 요소를 찾아 학생들과 나누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활동을 통해 세계시민의 개념이나 세계시민의 모델이 우리가 사는 이 곳 제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메시지를 학생들에게 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주의 신화 중 하나인 ‘자청비’ 신화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거죠. 자청비는 성취지향적이고 목표지향적

인 여성으로, 옥황상제의 아들을 사랑하게 되어 그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하늘 나라까지 올라갔거든요. 이 때 옥황상제가 일명 며느리 선발 대회로 내기를 걸게 되는데 지혜로운 자청비는 이것을 전부 다 맞추게 되죠. 그러자 옥황상제가 자청비에게 소원이 무엇인지 물어요. 이 때 자청비는 자신의 부귀영화나 권력이 아닌 ‘오곡의 씨앗’을 달라고 말해요. 이 오곡의 씨앗을 지상에 가져가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풍요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지요.

저는 바로 이 자청비의 모습에서 세계시민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이익을 꾀할 수 있는 순간에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 주면서 세계시민을 연결시키면, 아이들이 어떤 연결 고리를 찾게 돼요. 세계시민이 현대를 사는 지금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우리 역사 속에서, 문화의 원형 속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이처럼 아이들이 역사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경험 사례가 있다는 걸 알면 훨씬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어요. 세계시민이라는 것이 어떤 영웅이나 이국의 먼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역사와 생활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 그러나 함께 사는 가치를 실천한 사람들이라는 걸 깨닫기도 하고요.

이런 문화 원형에 관련하여 저는 제 이야기를 아이들과, 또 동료 선생님들과 많이 나누는 편이에요. 제 개인적인 배경에서도 이런 원형을 찾을 수 있거든요. 제가 8남매인데 아무래도 자녀의 수가 많다 보니 저희 부모님께

서 저희들이 부모님 없이도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원칙을 세우셨어요. 그 중 하나가 ‘형제책임주의’라는 것인데 바로 위 형제가 아래 동생을 책임진다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일들은 부모님 앞에 가져가지 않더라도 형제들끼리 해결하도록 한 것이지요. 저는 이 형제책임주의가 관계 중심적, 연대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려움에 처하면 외면하지 않고 공공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니까요. 관계지향적 삶, 연대하는 삶, 공감하고 지지하는 삶의 추구에 대한 원천이 바로 이 경험에서 기인한 거라 생각해요. 이처럼 저는 아이들에게 세계시민교육을 할 때 끊임없이 아이들 삶과 닿아있는 문화적 요소들, 삶의 원형들과의 연결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매일의 삶에서 세계 경험하기 & 세계 다시 보기

세계시민교육은 수업에서도 다룰 수 있어요. 난민, 공정무역, 분쟁 등에 관한 수업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제들은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아이들이 이런 주제를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난민에 관한 이슈를 이야기할 때에도 ‘난민’은 누구인지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저는 특히 이주민과 난민이 어떻게 다른지 아이들에게 생각해보도록 하는데요, 자발적 이유로 이주를 선택한 것이 아닌 극단적인 생명의 위협이나 박해의 상황 속에서 국경을 넘을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난민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인식하게 되면 이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우려야 할 기본적인 생명의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아이들이 난민에 대한 관심이 넓어지고 깊어져요. 그 전에는 난민에 대한 뉴스를 봐도 그냥 지나쳤는데 이제는 수업에서 그 이야기를 할 정도로요.

또 공정무역에 대한 수업도 많이 이루어지는데, 아이들에게 공정무역은 좋은 것이다, 라는 식의 당위성으로 접근하면 반응을 못 얻어요. 대신, 제 경험부터 이야기하는 것이죠. “얘들아, 선생님도 물건 사고 난 후에 어디서 그 물건을 더 싸게 파는 걸 보면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더라”라는 식으로 아이들의 관심을 끌면서 우리는 좋은 물건을 싸게 사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요. 그 뒤에 커피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초콜릿 등의 예를 들어서 원산지를 지도로 보여주고, 그 곳의 원재료 가격과 임금 등을 소개하고 이 재료가 선진국에서 가공되어 브랜드화 된 상품으로 얼마에 팔리는지를 비교해서 보여주고요. 이와 더불어 이 과정 상에 발생하는 아동노동 문제나 환경 오염 등의 문제도 이야기해줍니다. 그런 다음 아이들에게 질문해요. “우리가 이런 제품들을 사먹을 수는 있지. 그런데 그럼 그 안에 존재하는 문제들은 어떻게 하지?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원재료가 생산되는 지역 사람들의 노동착취에 동참하는 걸까? 이런 기업들이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물건들을 소비하면서 우리도 환경 오염에 관여하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에는 아이들이 쉽게 답하기 어려워요. 쉬운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러면서 공정무역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제품들에 대한 예시도 보여주죠. 그럼 아이들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본인의 소비와 선택에 있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돼요. 아이들이 단순하게 뭘 배웠더라는 것보다는 느끼고 생각해보게 되거든요. 저는 이럴 때 아이들이 사회 교과서의 내용들이 곧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교과 혹은 지식과 자신들의 삶과의 연결지점을

그리고 이를 통해 교과서 속 지식이 자신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앞서 제가 세계시민교육은 관계 맺음에서 시작한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아이들과 하는 활동도 이 선 상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해외아동들을 후원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을 할 때에도 교사가 가이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처음 저희 반에서 이 활동을 시작할 때 아이들이 각자 한 달에 천원씩 후원금을 모아서 해외아동을 후원했어요. 세계지도를 펴 놓고 아이들이랑 나라를 선정하고 우리 반 아이들의 '동생'으로 후원아동을 선택했어요. 그 때부터 동생같이 생각하면서 편지도 주고받고 활동을 지속하다 보니 옆 반에서도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고, 그러다 보니 학교 전체에서 동참하기로 했어요. 저는 이런 후원활동을 하면서도 아이들에게 있어 후원 자체보다는 '관계 맺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후원 기관에 요청을 해서 후원하는 나라들의 정보와 아동들의 이야기와 사진이 담긴 패넌을 제작해 복도에 붙여놓았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 앞에 모여서 자신들이 후원하는 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지금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누구네 반 동생은 타이어 굴리기가 취미라는 등, 이번에 편지를 쓸 때는 무슨 얘기를 쓸 거라는 등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의 관심이 모이고 공유되는 것을 봤어요. 저는 이게 문화라고 생각해요. 나와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아이들 안에 퍼지고, 이 관심을 표현하는 행동들로 후원활동이나 편지쓰기 등이 이어지고, 그 안에서 유의미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 말이지요. 많은 경우 아이들이 미처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른 나라에 무관심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선생님, 학교가 이런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다양한 관계 맺기를 경험하게 해 주면 아이들 안에 이런 나눔과 공감, 배려와 실천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지요. 기부를 얼마 하는 것 그 자체보다 이런 경험이 아이들에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계시민교육은 관계를 풀어나가는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갈등이 있을 때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공동체가 위기에 처할 때 같이 헤쳐 나가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평화와 인권, 정의를 중심에 두고 연대하는 공동체적 삶의 방식……, 이처럼 세계시민교육은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무대(교실, 학교, 지역, 세계)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는 교육이 세계시민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되면 주변의

일도 자신의 일로 여겨지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모두 관계를 지향하는 존재이기에 세계시민교육은 특정 교과, 일부의 사람들, 특정 시기에 국한되는 교육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교육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에 선생님들이 있는 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세계시민교육의 터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열어가는 세계시민교육

김민경 선생님은 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사(인천, 2015)로서 현재 인천청량초등학교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매일 마시는 물, 숨쉬는 공기 모두 지구라는 공동의 공간 안에서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동공유에 중점을 두고, 인간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 지구 환경 전체 속에서 인간은 하나의 구성원으로 존재한다는 점에 가장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과 동아리를 구성해 학교 안에서 우리의 손과 발로 바꿀 수 있는 점들을 찾아보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활동을 실천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당연하게 여겼던 주변의 분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화단의 꽃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현하는 아이들을 보며 감동을 느낍니다. 어릴 때부터 세계시민교육의 가치들을 내면화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세계시민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세계시민교육이란?

우리는 끊임없는 관계 속 공감의 존재

세계시민을 떠올리기 전에 ‘나’라는 존재자체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의 의미는 무엇이며 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기 위한 존재인지, 나의 생각은 어디에서 생겨나고 성장하고 있는 것인지 내면을 깊이 들여다 보았습니다. 비고츠키는 ‘관계의 교육학’에서 인간은 관계를 통하여 성장하고 생각을 키워간다고 했습니다. 관계가 없다면 인간의 모습을 갖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업사회와 지식기반의 사회를 지나 정보사회, 글로벌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2시간이면 지구 반대편으로 갈 수 있습니다. 1일 생활권이 전세계에 가능하게 되었고, 다른 나라의 실시간 뉴스를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우리 행동의 영향력이 우리 주변을 넘어 지구 반대편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시민의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내가 사용하는 전기, 매일 마시는 물, 심지어 숨쉬는 공기까지도 우리는 지구라는 공동의 공간 안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에서 중점을 두는 점이 바로 이러한 공동공유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인간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 지구 환경 전체 속에서 인간은 하나의 구성원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나 이외의 다른 것과 끊임없이 관계를 가지는 공감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스스로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 다른 것들을 조정하고 다룰 수 있다는 자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구에서 다른 동식물, 환경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다른 존재에 대한 경외심과 소중함을 느끼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세계시민교육의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2 아이들과 함께 한 “여행아이” 동아리 이야기

무슨 일이든 계기는 참 중요합니다. 유네스코 학교 담당을 맡고 있는 저는 어떻게 하면 세계시민교육의 내용을 실천하고 확산시킬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동아리는 학교 안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시범 운영하여 추후 다른 활동을 하고자 하는 학급의 모델이 되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아이’는 6학년 4반의 학급 프로젝트 동아리입니다. 동아리 이름 공모전에서 남학생 4명의 모듬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문구를 만들었을 때, 학급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평소 그 남학생들은 학급 내에서 손꼽히는 장난꾸러기, 개구쟁이였기 때문입니다. 진지하게 이야기 나누고 동아리 이름을 발표하는 남학생들의 얼굴에는 장난기보다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실천의 의지가 보였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미 이때부터 동아리 활동이 잘 될 것이라는 신념이 생긴 것 같습니다.

마음 열기: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 확장

처음 만남은 6월이었고, ‘마음 열기’라는 활동으로 아이들과의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담임 선생님도 아니고 전담선생님도 아닌 낯선 선생님과 함께 생각을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겁부터 났습니다. ‘학생들이 싫어하거나 귀찮아하면 어찌지?’ 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스스로에게 한 질문은 ‘선생님 자신도 흔들리는데 학생들은 이런 모습의 선생님을 보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였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 보단 학생들과 함께 공유하고 생각을 나누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다짐하며 첫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며, 지속적인 실천을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서로에 대한 ‘신뢰’가 핵심이었습니다. 6월이기 때문에 같은 반 친구들인 학생들은 서로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겉모습만 아는 것일 뿐, 진지한 대화를 나눈 경험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자에 대한 정보를 카드 식으로 4장을 만들어 ‘친구 찾기’를 시도했습니다. 담임선생님과 함께 자료를 수집하며, 혹시 학생들이 너무 쉽게 서로를 찾으면 어떻게 할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실제 활동을 해본 결과, 정말 의외였습니다. 친하다고 생각했던 단짝 친구 사이조차도 서로의 꿈이 무엇인지, 평소 무슨 고민을 갖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당황했습니다.

상대방과 친하다고 해서, 알고 지낸다고 해서, 진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진지한 대화를 나누며 상대방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것의 중요성을 학생들은 체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낯선 선생님이었던 저도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벽을 조금은 낮추고 각자 자기소개를 하였습니다. 처음 저를 학생들에게 소개하며 ‘6월, 나의 키워드’라는 토픽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부터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했습니다. 학생들은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진지하게 듣고 말하였습니다. 고민을 말할 때에는 다른 친구들이 그 고민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것은 2시간이었지만 진지한 대화가 길어지게 되어 3시간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열기’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속칭 ‘대박’이라고 표현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며 공감하는 태도를 익히기도 하며 눈물을 흘리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6학년 4반 학생들과 저는 학교식당, 복도, 운동장 등 어디에서 만나도 반갑게 인사하고 미소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스스럼 없이 다가와서 질문을 하기도 하고 자기의 생각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정말 순수합니다. 교사가 마음을 열면 학생은 그 이상의 감동을 보여줍니다. 마음열기를 통해 서로를 신뢰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은 대상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의 문제점’에서 출발: ‘손&발 프로젝트’

학생들과 프로젝트 전반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시민이란?’이라는 주제로 토의를 했습니다. 환경보호, 지구촌 살리기, 문화재 알아보고 지키기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 우리와 관련 있는 것에 대해 순위를 매겨보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은 세계시민교육이란 생각하고 공유하고 실천하는 것이므로 실천을 위해서는 우리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교사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초등학생의 인지수준과 범위는 넓지 않습니다. 6학년이라 할지라도 사고의 범위는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시민교육의 관점에서 우리의 책임과 권리, 우리 사회의 구조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속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것은 내면화를 통하여 실천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주변, 이웃, 사회에 대한 관심과 그 수준에서의 문제 인식, 해결방법 탐색, 실천을 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세계시민교육은 아동이 주변 환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견해를 들을 수 있도록 하며 좋은 선택과 나쁜 선택의 차이점, 자신의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게 해 줍니다(Margaret Collins, 2012).

아이들이 우리 주변의 문제점으로 선택한 2가지는 ‘스마트폰 사용문제-

특히 댓글’, ‘우리학교 엘리베이터 사용 문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 주관적 문제를 배제하기 위해 ‘공동의 문제’에 대한 사전 교육을 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가장 문제 있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라는 주제에 대해 학생들 스스로 자신들을 되돌아 보고 공동체 의식 안에서 문제점을 스스로 찾아냈습니다. 솔직히 스마트폰 사용 문제는 학생들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단체 카톡 방에서의 댓글이나 상대방에 대한 글 작성에 대한 문제가 현재 초등학생들에게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의외의 주제는 ‘엘리베이터 사용문제’였습니다. 학교나 선생님의 눈을 피해 6학년 학생들이 속이는 방법이 기발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반성을 하고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선생님과 친구들을 속이는 정직하지 못한 행동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것을 바꿔가고 싶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전기에너지 절약을 위해 계단사용의 순기능을 홍보하여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싶다는 학생들의 의지였습니다. 스마트폰과 엘리베이터라는 소재가 나오자 수업 중 어떤 학생이 ‘그거 손과 발을 바꾸면 되겠는데요?’라고 장난스럽게 말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손&발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수업, 학생중심의 수업은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면에 따라 진행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일 것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이름을 지어내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세계시민교육이 바라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시키지 않아도 한 발짝 더 나가는 아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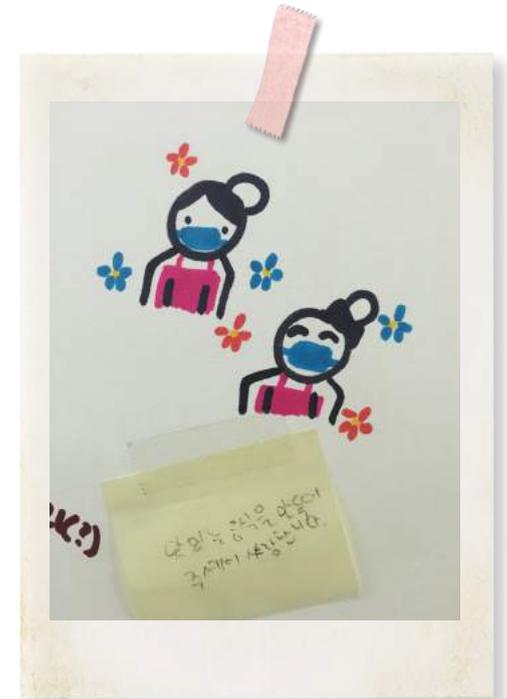
발 프로젝트인 엘리베이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낸 아이디어 ‘칼로리 계단 만들기’는 학생들이 계획하여 만들고, 게시한 후 실제 학교에서 활용되었습니다. 1층~5층까지 계단 칸칸이 칼로리를 계산한 후 표어를 만들어 일일이 손으로 작성하고 색칠해서 오려 코팅한 후 계단에 직접 붙였습니다. 6학년 학생들이 계단을 즐겁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엘리베이터 사용의 문제는 줄어들게 되었고 긍정 행동의 유도로 부정 행동을 줄이는 넋지효과

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중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1층만 사용하는 1학년 학생들이 5층까지 하나하나 계단을 오르며 칼로리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제작한 6학년 학생들은 이 모습을 보며 뿌듯하였고 친절하게 1학년 학생들에게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학생의 배움 실천은 교사의 의도를 항상 넘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활동하며 큰 감동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10월 첫째 주, 여느 때와 같이 점심시간에 학교 식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배식대 앞에서 음식을 담다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벽에 처음 보는 게시물이 붙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여행아이’동아리 학생들이 급식소 아주머니께 감사의 쪽지를 붙인 것입니다. 기특하고 신통하여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너무 행복해 하니 다른 선생님께서 교문 쪽에도 비슷한 것이 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궁금하여 교문 앞 배움터 지킴이 실 앞으로 가보았습니다. 거기에도 배움터 지킴이 아저씨와 녹색어머니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평소 무뚝뚝한 우리 학교 배움터 지킴이 아저씨께서는, 환한 얼굴로 몇 년 동안 이 학교에 있었는데 이런 편지는 처음이라고 하시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3

함께 가기에 더 행복한 길: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일하기

저는 그날의 감동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과 수업하며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자칫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할 것들에 감사하는지 생각해보자라고 말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풀, 공기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자라고 했던 말들을 가슴에 담은 학생들은 우리 학교에서 우리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화단에 피어있는 꽃들도 아름답고 고맙다고 말하는 6학년 학생들이 되었습니다.

팀티칭으로 꾸려 간 동아리 활동

저는 유네스코 동아리 활동을 처음 시작하며 학교 안에서 이 동아리의 실천모습을 알려야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런 동아리나 교육활동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께 이것을 하면 좋겠다는 말의 설득력과 실천력이 부족했습니다. 저 혼자 동아리 학생들을 모집해서 실천하면 일은 진행이 되겠지만 그것이 확산되고 다른 선생님들과 공유가 되기는 힘든 일입니다. 스스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교사에게 알리고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단 점에서 고민하던 차에 마침 6학년의 후배 교사가 1년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했습니다. 평소 교육활동에 열심인 이 선생님께서는 학급운영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복직을 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의 흐름이 버겁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고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는

선생님과 함께 실천을 하는 것은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발표나 질문도 활발히 하고 무엇인가 의미 있는 것에 몰두하게 하기 위해 담임선생님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는 함께 실천하고 공유할 선생님을 찾고 있었고, 6학년 4반 선생님은 복직 후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팀티칭을 하며 프로젝트 수업을 해보자고 제안했을 때 그 선생님께서는 반기며 고마워했습니다. 방과후 교실에 둘이 함께 모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학습자 중심의 교육 활동을 구안하며 세계시민교육의 내용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선배교사인 저는 교육과정 재구성이나 학습방법에 대한 멘토가 되어 주었고 후배교사는 그것을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점차 교수법과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교사 스스로의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시민교육 교사 연구회: 도전이 소중한 경험으로

2015년 인천에서는 세계시민교육 교사연구회를 조직해 운영했습니다. 저에게 연구회는 커다란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초, 중, 고 급이 다른 44명의 선생님이 모여 무엇인가를 공유하고 함께 연구한다는 것은 사실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할 수 있을거야’라고 생각하게 된 데에는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에서의 연수와 워크숍이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들 각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그 실력을 믿어주는 모습은 연수를 받

는 기간 내내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편안함은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 더 좋은 방향, 모두가 함께 하는 의미 있는 길을 찾게 해주었습니다. 인천 세계시민교육 선생님들과도 같은 생각으로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나의 가슴 속 말들을 전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그것이 신뢰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2015년에는 연구회 선생님들과 함께 세계시민교육 실천 사례를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수업사례집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를 확산하여 세계시민교육을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재구성할 수 있도록 연구회와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연구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초, 중, 고에서 세계시민교육 공개수업을 진행해 실제 수업에서의 실천 사례를 더 구체화하며 앞으로의 방향을 찾아나가고 싶습니다. 세계시민교육 활동을 하며 많은 기관과 단체들을 알게 되었는데 이러한 단체들의 다양한 사업과 실천에 함께 할 수 있는 교육활동을 탐색하고 학교 현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펼쳐낼 수 있을지도 연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많이 실시되는 세계시민교육은 단순히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강사들이 학교에 와서 2차시 정도의 이해교육을 실시하거나, 국제이해교육을 하기 위해 해당 국적 강사들이 와서 옷이나 음식 등을 소개해주는 교육활동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보다 체계적인 세계시민교육의 현장 사례들을 발굴해 내어 세계시민교육의 실천 모습이 단순한 학교 행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내용적으로, 또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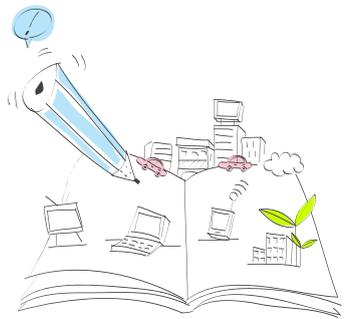
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델링을 하는 것이 앞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해 나갈 방향입니다.

4 세계시민교육, 앞으로 우리는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는 교사의 모습은?

저는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선생님들이 공감능력, 대인관계능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과 같은 능력과 인내심, 여유, 긍정적인 태도, 높은 자기 효능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지 않으면 독선이 되며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공감만 하게 되면 추종자가 되거나 잘못된 것을 수용하게 되므로 비판적 사고력을 가지고 예민하게 관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 학생들과 함께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포함하여 주변의 교사들, 지역사회, 학부모와 함께 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의 문제는 공동의 합의와 분위기, 문화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내심과 여유, 긍정적인 삶의 태도가 필요할 것이며, 높은 자기 효능감은 미래의 행동 변화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자신의 노력과 열정, 실천이 미래 사회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은 세계 시민교육을 실천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에서의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은 서로에 대한 권리, 가치인식, 공유, 공감과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런 가치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이 되어야 내면화가 되고, 그 힘에 기반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초등학교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세계시민교육을 국제교류로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주변과 사회에 관심을 갖게 되며, 가치판단에 대해 배워가는 시기이므로 추상적인 내용으로 세계시민교육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다가간다면, 초등학교에서의 세계시민교육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계시민교육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너와 나를 연결하는 고리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관계의 연결과 그 연결의 무한한 힘이 세계시민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천천히, 하나의 변화로 시작하기: '촛불하나' 이야기

최재화 선생님은 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사(경기, 2015)로서 현재 인천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가 직면한 공동의 문제를 작은 실천을 통해 바꿔보자는 취지로, '촛불하나'라는 동아리를 만들어 학생들과 함께 매일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기획하고 실천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이 학교 현장에 자리잡고 확산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교육 현장의 운동성과 자발성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의 성장에 교육을 맞추어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나 스스로와의 소통을 시작으로 우리, 세상, 지식과의 소통을 끊임없이 이루어 내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노력합니다. All for One, One for All.

나에게 세계시민교육이란?

인식의 전환, 생각의 재구조화로 출발

저는 세계시민교육을 접하기 이전부터 꾸준히 협동학습연구회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협동학습은 협업, 다름에 대한 존중, 더불어 사는 삶, 평화롭게 살아가기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세계시민교육 역시 이러한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많은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 편으로는 좀 더 큰 그림 안에서 저의 교육적 신념이나 방침을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항상 믿고 실천하던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한 교육이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이름의 교육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했고요. 교과서를 보면 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 편으로는 제가 'act locally'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이라는 하나의 큰 틀 안에서 저의 교육적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재구조화되는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마치 퍼즐조각들이 맞춰

지듯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단편적 경험이나 지식, 생각들이 맞춰져 나가는 것처럼 말이지요. 이런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니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여진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것을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에서 출발하면 부담감이 먼저 왔을 것 같지만, 제 경우는 저의 생각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옮겨진 것 같습니다. 학생들과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 것이 첫 단계였을 것 같고요.

세계시민교육을 하나의 새로운 이름을 가진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시민교육에서 말하는 가치나 내용들을 분절적이거나 별개의 정보들로 받아들이면 막연하고 새로운 정보로만 다가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교과서나 학교에서 가르치고 접하는 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살펴보면, 연결 가능한 지점들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과 내에서 다루는 환경의 문제라든지, 사회적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주제나 내용들이 세계시민교육에서 말하는 내용과 가치들을 담아내고 연결할 수 있는 지점들이 될 수 있으니까요

고등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 과연 가능할까?

교과에서 이런 내용이나 가치를 녹여내고, 아이들의 공감을 끌어내 생각해보게 하는 기회들은 곳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을 짧게 나눠보자면, 제가 맡고 있는 영어교과와 사회, 문학 교과가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주제로 융합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어 교과에서 ‘Economy or

Environment?’라는 제목으로 환경과 개발을 둘러싼 논쟁에 관한 내용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와 연계한 융합수업을 사회, 문학 담당 교과선생님들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사회 교과에선 관련 동영상(‘공존의 사회’ - MBC 스페셜)을 보고 학생들이 모둠 활동을 통해 토의하는 활동을, 문학 교과에선 댐 건설로 인해 수몰된 지역의 실항민에 관한 작품(‘징소리’, 문순태)을 읽고 이에 관한 생각과 느낌을 글과 말로 표현하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영어나 사회 교과의 내용을 통해 개발과 환경의 문제,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배경 지식을 갖게 해주었고,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문학 작품을 통해 산업화의 이면과 그 과정 속에 소외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접하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개발과 환경에 대한 문제를 직접 느끼고 생각해볼 뿐 아니라, 자신의 언어로 표현해보도록 한 것이지요. 이 수업을 통해 주제에 대한 지식을 더 풍성하게 전달할 뿐 아니라 다양한 시각과 입장을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환경과 개발이라는 딱딱한 주제를 보다 다각적으로, 심도 깊게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문학작품 속 인물들의 상황에 공감하며 자신의 생각을 더 넓혀갈 수 있었다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의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려면 교과와의 연결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계시민교육에서 말하는 ‘가치교육’은 ‘인지적 영역’과 연계되지 않으면, 학생들-특히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윤리나 사회 교과처럼 세계시민교육의 주제나 내용과 직

그 결과 기대보다 많은 인원이 지원하여 2배수가 넘는 인원을 탈락시켜야 했습니다. 1,2학년 각 10명씩, 그리고 3학년은 4명을 선발해 24명으로 구성된 '촛불하나' 동아리가 탄생했지요. 꼭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재능과 관심이 모두 다른 학생들이 모이게 되었는데, 이러한 다양한 학생들의 구성은 동아리 내에서 자연스럽게 친구들끼리 배움의 기회를 여는 동인이 되어주었습니다. 빵을 잘 만드는 친구부터, 춤을 잘 추는 친구, 컴퓨터를 잘 다루는 친구 등 다양한 재능과 흥미를 가진 아이들이 모이니 학생들 안에서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진짜 의미의 교육적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었지요.

활동을 통한 성장: 기대하되 기다려주세요

처음 학생들과 시작한 활동은 아무래도 수업 중에서도 자주 다루고 누구에게나 공감할 수 있을 주제인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주제로 한 활동이었습니다. Earth Hours, 지구사랑 지역사랑 '꽃을 품은 지구', 물사랑 스승사랑 등으로 학생들과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지요. 우리가 직면한 공동의 문제를 작은 실천을 통해 바꿔보자는 취지로 꽃 대신 종이를 만든 카네이션을 스승의 날에 선물하는 등(물사랑 스승사랑, 꽃 한 송이를 기르는데 드는 물의 양을 생각해보고 가능한 변화를 실천해보자는 의미) 매일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캠페인 형식으로 기획하고 실천했습니다. 이런 캠페인 활동들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호응을 얻으며 기획력과 활동력 신장 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런데 활발한 활동에 반해 활동의 주제에 대한 좀 더 깊은 차원의 고민이나 생각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의 의도와 학생들의 관심 사이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현실적인 부분을 깨달을 수 있었지요.

실제로 처음 동아리 활동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동아리의 취지대로 모든 것이 '학생들로부터' 시작되길 희망했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찾고, 부조리한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 학교, 우리 지역, 우리 사회에서 바뀌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해결방안을 위해 행동해보자는 것이 이 동아리의 목적이었기에 이러한 인식과 자각이 학생들로부터 시작되길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이런 활동에 관한 기획서를 써 보게 하니 학생들의 관심사는 이런 주변의 문제, 사회적 이슈들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이 매일 경험하는 '또래 관계'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밥 먹을 친구가 없는 것이 고민이라는 이슈부터 혼자 밥 먹을 수 있는 칸막이가 설치되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또래 사회에서 일어나는 고민거리와 갈등상황에 관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싶어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경험하며 교사가 가고 싶은 방향과 학생들이 현재 머무르고 생각하는 상황 및 인식의 수준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교사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기에, 중간 중간에 방향을 제시해주되 학생들의 속도에 맞춰 기다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작업이 지금까지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처음 동아리를 시작할 때의 취지가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서 깊이 있게 사고하고, 변화의 주체로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장 구현해내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더군다나 세계를 대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에는 아직은 학생들이 내면의 힘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학생들 주변의 것들에 관심을 더 가지도록 활동을 구성해왔습니다. 때마침 교내 학생 교양 프로그램으로 '낭독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낭독할 책이 학교폭력을 다룬 '우아한 거짓말'이었기에 학생들과 함께 친구사랑, 폭력추방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인권, 문화다양성 존중, 전쟁 등의 큰 틀에서 바라보기 전에 학교 안의 평화를 볼 수 있고 인식하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낭독콘서트가 끝난 후 바로 동아리 학생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추방 다짐운동' 캠페인을 실시했는데, 학생들이 각자가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다짐을 적은 메시지를 적어 전시하는 활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낭독콘서트의 내용과 연계되는 캠페인이었기에 학생들의 호응을 많이 얻었던 활동이었지요.

이후 학생들이 매일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휴대폰 사용에 초점을 맞춰 Digital Detoxication 프로젝트를 실시, 휴대폰에 중독된 우리의 모습을 재조명하고 실제 일정 기간 동안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경험해보는 활동을 기획했습니다. 워낙 휴대폰에 애착이 강하기 때문에 몇 명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동아리 활동의 의

미와 변화의 가능성을 직접 아이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주로 캠페인 형식으로 진행된 동아리활동을 1년간 지속해오면서 느꼈던 것은 앞서 말씀 드린 대로 학생들의 관심과 인식이 확장되기 위해선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과 '시민'으로서의 경험이 매우 적은 학생들이 한 두 차례의 활동 참여로 인해 스스로를 시민으로 인식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교사의 과한 욕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한 활동이고 앞으로 계속 지속해 갈 것이기에 교사로서 방향과 의견을 제시해주고, 학생들을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목소리와 생각으로 활동들을 끌어가길 바랐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의 개입이 간섭이라고 느끼지는 않을까 걱정도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보니 다행히 제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저의 의견을 함께 피력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학생들의 생각과 의견, 피드백을 설문조사 등을 통해 자주 묻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에 대한 이해 없이 제가 학생들의 활동을 잘 받쳐주기 어렵다는 생각에서, 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학생들과의 합의된 내용과 방향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2 세계시민교육의 가능성 찾기

학교 밖 세상에의 참여: 지금까지의 활동의 의미를 발견하다

그간 동아리의 다양한 캠페인과 활동들을 위해 아이들이 자신들의 재능을 가지고 봉사하고 나섰던 이유는 이러한 활동이 바로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이자 역량임을 제 입으로 말해주고 싶었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이 의미를 찾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꼭 참여했습니다. 그러던 중 학생들이 보다 넓은 세계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UNAI(UN Academic Impact) Aspire 포럼에 저희 '춧불하나' 동아리가 초청받게 된 것인데요, 동아리에서 진행한 활동들을 소개하고, 미미하지만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워가며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활동할 때는 보지 못 했던 세계와 자신들과의 연결고리를 처음으로 보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펼쳤던 활동들이 학교 안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시민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진행

되어 왔으며 앞으로의 활동 또한 이 관계성 안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가지게 되었을 것이고요.

학생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 정도로만 인식하는 반면, 포럼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학생들의 세계시민적 활동에 초점을 두어 많은 관심을 주시고 질문도 많이 하셨습니다. 학생들이 활동에 대한 설명이나 답변을 세련된 언어로, 심도 깊은 차원의 내용으로 전달하지 못 하여도 자신들의 활동이 우리 사회와, 또 나아가서는 세계와 어떤 접점을 가지고 있는지 느낀 것 만으로도 좋은 배움과 경험의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사참여를 계기로 경희대학교에 초청되어 세계시민교육을 다시 경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곳에서도 학생들이 인상적인 경험을 하였는데, 행사에 자발적으로 찾아온 또래 학생 몇 명을 보며 자극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초대되어 간 저희 동아리 학생들과 달리, 신문 기사를 통해 행사를 접하고 스스로 국제 문제와 세계시민에 대한 관심이 있어 행사장에 발걸음을 한 또래 친구들을 보면서 저희 학생들이 깜짝 놀라게 된 것이지요. 내가 살고 있는 학교 밖에 와 보니 의식 있고 참여적인 또래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학생들에게는 신선한 자극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학교 밖 세상과 연결되는 경험은 학생들에게 좋은 배움의 기회이자 평소에는 발견하지 못 했던 자신들의 생활과 활동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어준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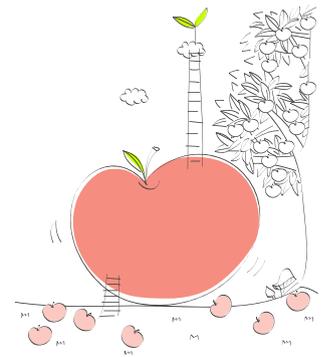
학생들의 세계시민성 내재화를 바라보며

지금까지의 이러한 단계적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학생들이 활동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활동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들을 학생들 스스로 내면화하는 단계로 나아가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꾸준히 학생들의 자발성을 믿고 다양한 참여적 활동을 지속해 나가다 보면 학생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세계 시민성을 내재화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주고, 외부 집단에 참여를 유도하고, 계속해서 학생들이 어느 지점에 있는 것인지 스스로를 인식하고 자각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줄 생각입니다.

교사를 믿고 기다려주세요

세계시민교육이 학교 현장에 자리잡고 확산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교육 현장의 운동성과 자발성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교육 현장이, 정해진 교육 과정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없진 않지만 그렇다고 어떤 외부적 요소나 외적 동인만으로 교육을 움직여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제도로 인해 오히려 교육의 순수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학생들이 하나의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고, 교육의 연속성이 깨어지기도 하지요. 이 과정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내면화되기도 할 테고요. 단시간에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고 기다려주는

것. 깨어 있는 교사들이 많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으로 교육의 힘을 믿는 교사들이 많다는 것을 믿어주는 것이 세계시민교육을 진정성 있게, 그리고 지속성 있게 진행해나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필요한 도움이 있을 때 교사들의 요청이 있을 때 귀 기울여주고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은 필요할 테지만요.





“저는 세계시민이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내면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되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차이를 존중하며 상대방과 합의의 지점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 말이지요. 따라서 상대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 되고, 나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이 될 수 있는, 또 상대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같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국가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는 인류 공동의 문제가 거창한 것이 아닌 우리 삶의 실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이상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고민과 실천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현실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세계시민교육, 아이들과 눈맞춰 함께 가기

김양모 선생님은 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사(경북, 2015)로서 현재 안동동부 초등학교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 아이들이 매일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들로부터 세계시민교육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날이 따뜻하면 자가용 대신 버스를 타고 걸어서 출퇴근한다는 선생님은 늘 같은 것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다르게’ 보기를 권합니다. 보이는 것이 달라지면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다른 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문화, 지형, 역사를 담은 활동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며 침체되어 있던 학생들의 자신감을 북돋는 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믿고 격려해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세계시민교육이란?

지금 선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

세계시민교육을 말하기 전, 먼저 우리 학교의 특징과 환경적 요소에 대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학교는 사회적 배려 대상 아이들이 50% 정도 있는 학교예요. 아이들과 지내며 느끼는 것은 아이들의 자아존중감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을 해도 관심이 적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고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합창 대회를 열어서 연습을 하려고 해도 아이들이 참여하지 않는 거죠. 일일이 가서 데려와야 겨우 연습이 되는 정도로 무언가를 해 보려고 한다든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며 맞닥뜨린 세계시민교육은 거창한 것이 아닌,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어떤 씨앗을 키워나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스스로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도록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먼저 보고 속에 있는 것들을 꺼

내어 그것을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했을 때 우리 학교가 있는 마을, 이 곳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사실 우리 지역은 예전에는 안동의 중심지였다가 중심지가 이동하면서 소외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마을 주민들도 이 마을에 큰 애정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 지역은 굉장한 보물들이 숨겨져 있는 곳이에요. 삼국시대부터 현대까지 그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재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마을 주민들도, 학생들도 이 문화재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있는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알지 못할 뿐이지요. 그래서 우리 학교 주변의 문화재들을 아이들에게 알게 하고 그 유래와 의미, 그 안의 역사를 알게 하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그 속에서 뭔가를 찾지 않을까 해서요.

이 생각을 하며 예전에 연수 들을 때 만났던 선생님의 ‘마을 지도 만들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문화재를 활용한 마을 지도를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보자는 것이었지요. 아이들이 마을의 보물들, 문화와 역사에 대해 배워가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릴 수 있는 자료를 만들자는 생각에 이르렀어요. 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내가 사는 곳, 내 주위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란 생각도 했고요. 나의 삶의 현장에 직접 참여해보고 무언가 행동해 본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었지요. 나아가서는 우리 주위를 아이들이 다시 보고 자신들이 바꿀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한 뒤

찾아보고, 바꾸어 보자는 생각도 한 것이고요. 또한 문화라는 면에서 봤을 때 지역의 문화가 곧 세계의 문화가 되는 오늘날 아이들에게 분명 이 활동이 의미가 있을 거란 생각을 했어요.

손잡고 걷기만 해도 문화 공부, 역사 공부

안동은 문화와 문화재가 굉장히 잘 섞여 있는 곳이에요. 등록문화재 수로 보면 서울보다 안동이 더 많거든요. 이 사실을 아이들은 모르지만요(웃음).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하나씩 던져 주고, 실제로 같이 가서 보고 설명해주면서 의미를 전해주면 아이들이 신기해하고 좋아해요. 특히 우리 학교 앞에도 여러 문화재가 있어요. 학교에서 조금만 가면 ‘임청각(臨淸閣, 보물 제182호, www.imcheonggak.com)’이 있어요. 우리나라 첫 번째 임시정부 국무령이셨던, 석주 이상룡 선생님이 태어나신 곳이지요. 그 옆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전탑인 ‘법흥사지 칠층전탑’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 된 전탑인 ‘동부동 오층전탑’이 있어요. 여기 바로 옆에는 또 ‘태사묘(太師廟, 보물 제451호, www.tsm3.or.kr)’가 있는데 거기는 공민왕의 유물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마을 분들은 잘 모르고 계시요.

학교에서 나와 아이들 손을 잡고 거리로 나가면 보여지는 것이 문화재예요. 그럼 아이들에게 쉽게 가르칠 수 있지요. 학교 앞으로 걸어가면 옛날 일본식 건물인 집들이 남아 있고, 조금 더 가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카페가 나오고, 학교 뒤로는 요즘 유명해진 벽화 마을이 나와요. 벽화 마

을 갔다가 위에 암자에 올라가 보고요. 아이들이랑 이런 곳들을 지나가면서 “얘들아, 여기 봐라”하고 이야기 나누면 자연스럽게 문화 공부, 역사 공부가 되는 거예요. 따로 떨어진 공부가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아이들 손잡고 “교감 선생님, 다녀올게요!”하고 나가면 되거든요. 물론 이건 저희 학교가 작은 학교라서 가진 이점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한 문화재, 문화 공부를 시작하면서 아이들과 마을 지도를 만들어보는 것을 시작했어요. 4월쯤 저학년 여섯 명 아이들과 함께 ‘지구지킴이’라는 이름으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고학년 아이들의 참여가 필요할 것 같아 제가 작년에 담임을 맡았던 아이들 중심으로 6학년 아이들이 함께 하게 되었고요. 앞서 말한 공민왕의 유물이 있는 ‘태사묘’를 아이들과 제일 먼저 갔었고, 이후 다른 아이들도 같이 ‘범홍사지 칠층전탑’이랑 ‘임청각’도 다녀오면서 아이들이 문화재에 대해 기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문화재에 대해 먼저 배우고 나서는 이제 마을 문화 지도를 본격적으로 그려보자 하고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이 마을 문화 지도에 자신들이 직접 이 장소들을 설명하는 영상을 넣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칭찬을 하고 추진했어요. 지역의 두루협동조합이란 곳에서 도움을 많이 받아서 같이 공부하고 인터넷 지도도 참조하면서 지도 만들기를 시작했어요. 지도 만들기를 하면서 아이들 눈을 봤는데, 평소에는 관심도, 열정도 없고 자존감마저 낮은 아이들이 정말 눈이 반짝반짝한 거예요. 문화재를 직



접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서 QR코드로 넣어야 하니 아이들이 대본도 만들고 녹화 연습을 하는 등 한참 바쁘게 준비했어요. 그렇게 준비를 한 뒤 10월에는 곳곳을 다니며 동영상 촬영했어요. 그 결과로 이 지도가 나왔고요.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짜리 지도이지만 아이들에게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도에 담겨 있는 장소 하나 하나가 아이들이 저랑 일일이 다니면서 배우고, 기록하며 시간을 나눴던 장소거든요.

지도 만들기를 마치고 마지막에 아이들 인터뷰를 했는데, 아이들이 1분 동안 카메라 앞에서 자기 경험을 술술 이야기했어요.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자존감이 매우 낮아서 누구 앞에서 이야기하거나 자기 경험을 말하는 것을 많이 꺼렸거든요. 특히 그 중 한 아이는 특수교육 대상 아이이고 자기 의사표현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카메라 앞에서 40~50

초 동안 말을 이어 나가는 것을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이전에 볼 수 없던 모습으로 직접 뛰어다니고, 지도를 그리고, 공부도 하고, 직접 영상도 기획해서 찍었거든요. 그 모습 속에서 아이들의 진짜 살아있는 모습, 집중해서 무언가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아이들의 눈빛이 살아나고 달라지는 것을 조금씩 볼 수 있었던 것, 저에게는 그게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변화: 우리 학교 다시 보기, 우리 마을 다시 느끼기

아이들이 문화 지도 만들기를 하면서 학교와 무심코 지나던 학교 주변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아이들에게 학교는 작고 계속해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빈 교실이 많은 학교로 인식되었는데, 문화 지도 만들기를 하면서 학교를 다시 보게 된 것 같아요. 또한 매일 그냥 지나쳤던 학교 주변의 문화재들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마을에 대한 의미도 새롭게 발견했다고 생각해요. 또 문화재가 단순히 옛날의 것이라는 생각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도 있었지요. 특히 좋았다고 생각한 것은 아이들이 학교가 있는 이 지역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 것이에요. 직접 만든 문화 지도를 마을 이곳저곳에 배포해드렸는데, 아이들이 지도가 배포된 가게에 갈 때마다 “이거 우리가 만든 지도예요. 우리 거예요”라고 먼저 얘기하고 자랑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자신들이 있는 이 곳을 전보다 긍정적인 눈으로, 애정을 가진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지요.

더 나아가서 아이들이 이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어떤 문제들이나 개선해야 할 점들을 발견해서 대안을 찾아보아도 좋겠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아이들의 이런 변화도 저는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이것이 확장되면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기도 하고, 해결점을 모색해보기도 하는 단계가 오겠지요(웃음).

거창하지 않고, 대단하지 않지만, 지금 이 곳에서 시작할 수 있는 교육

세계시민교육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기엔 아직까지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솔직히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고요. 여전히 세계시민교육 하면 원어민 선생님이랑 공부하는 것이라는 지 뭔가 거창한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도심지 같은 곳은 모르겠지만, 우리 학교 같은 곳에서는 아이들이 매일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들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존중이나 배려, 공감 이런 단어들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좀 어렵게 다가갈 수 있어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같이 잘 지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싸우면 둘 다 같이 불러서 얘기해요. 피해를 본 아이도 무언가 피해를 준 아이에게 방해했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무래도 초등학교잖아요. 아이들에게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지 않도록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

세계시민교육의 가능성 찾기

이처럼 우리 아이들은 세계시민교육을 거창하게 말해도 아직은 잘 못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매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잘 지내는 것으로도 저는 감사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문화 지도를 만들 때에도, 지도에 들어갈 문구 하나를 정할 때에도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고, 잘 쓸 수 있는 단어들로 찾아서 하느라 고민을 많이 했어요.

또 저는 아이들 사진을 아주 많이 찍어요. 아이들 수업할 때, 활동할 때, 같이 모여 있을 때 등 거의 항상 찍죠. 한 해 동안 찍은 사진을 모으면 만장 정도 될 거예요. 아이들이 사진 찍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학교 아이들이 누구에게 사진을 찍혀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 부모님들도 생업으로 너무 바쁜 분들이 많아서, 대부분 아이들에게 관심을 많이 주기 어려워요. 아이들 사진을 열심히 찍어서 부모님들에게 카페나 밴드 등을 통해서 올려드리면 부모님들도 좋아하시지요. 제가 사진을 올리면서 아이들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시라고 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랑 부모님들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이야기도 하게 되고 여러 모로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부모님들이 많이 고마워하시기도 하지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즐겁고 새롭게 시도하기

마을 문화 지도 만들기는 학교 주변을 돌아보면서 아이들과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논하던 중에 나온 생각이예요. 저는 매년 3~4월에는 자가용 대신 버스를 타고 학교에 출퇴근하는 편이에요. 자가용을 타고 학교에 오면 앞만 보면서 오게 되는데, 버스를 타고 걸어서 학교에 오면 보이는 것이 달라져요. 안 보이던 곳이 보이기도 하고요. 학교로 들어오는 골목을 걸어서 들어오다 보면 의도하지 않아도 유심히 구석구석을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아이들과 다음에 이걸 해 보면 재미있겠다’ 싶은 것들이 떠올라요. 만약 학교 바로 앞까지 버스가 들어오는 경우라면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걸어오면 보이는 것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보이는 것이 달라지면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러다 보면 다른 눈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제가 초등학교에 있다 보니 시간표를 좀 유동적으로 쓸 수 있어요. 교육

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고요. 고정된 주간 시간표 대신 유동적으로 아이들과 수업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제가 아이들과 했던 문화지도 만들기 같은 프로젝트 형식의 수업을 할 때는 집중해서 여러 시간을 몰아서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럴 경우 시간표를 조정해서 활용할 수 있고요. 물론 초등학교는 아이들 연령이 낮다 보니 어렵고 거창한 내용들을 다루기는 힘들겠지만, 대신 아이들과 함께 즐겁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많아요.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세계시민교육 수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계속 아이들이 줄고 있어요. 해마다 아이들 수가 줄다 보니 이런 식으로 가면 학교가 없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테고, 그러면 지역의 문화도 상당 부분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살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란 생각이 들어요. 작은 학교들이 특성에 맞게 잘 살아나고 지역 문화의 중심지로 서는 것,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좀 더 풍성한 교육 기회들을 얻게 되는 것.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했던 활동들이 작지만 이런 지역 문화에 힘을 불어넣는 일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재미있고 신나게 참여했던 시간과 활동을 통해 아이들 스스로의 변화가 먼저 생겨나고, 이것이 이어져 마을과 지역의 변화로도 이어졌으면 합니다.



“저는 세계시민교육이 거창한 것이라기보다는 선생님들께서 각자 계신 곳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즐겁게 하는 교육이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은 어찌 되었든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니까, 어떤 획일화된 기준이나 내용을 강요하기보다는 각자의 자리에서 세계시민교육의 가치들을 전달하되 아이들에게 잘 맞고 꼭 필요한 교육을 하도록 맡겨주고 믿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쩌다 한 번씩 잘 하고 있다고 격려해주는 정도면 좋을 것 같고요.”



미래로 가는 길, 선생님과 함께 걷는 세계시민교육

정애경 선생님은 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사(서울, 2015)로서 현재 서울국제고 국어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교육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함께 살아가는 아시아'를 꿈꾸며 동료 선생님들과 네팔과 라오스 등 아시아 국가에서의 교육 자원 활동을 열심히 펼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세계시민교육은 어떤 특정한 내용과 주제를 다루기보다는 우리 삶의 문제를 다루는 교육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기에 '나 자신'의 가치관과 생활의식이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에게 세계시민교육이란 '미래로 가는 길'이며, 그 길 위에는 먼저 고민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변화하는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에게 세계시민교육이란?

인식의 전환을 가져다 준 해외봉사활동 경험

저는 2000년에 고비사막에서 진행된 '환경 살리기 운동'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세계시민교육 관련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울란바토르에서 자전거를 타고 와서 고비사막에 나무를 심고 중국 베이징으로 다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이것이 저의 세계시민교육을 향한 첫 발자국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후로도 계속 자전거를 타고 환경 운동을 했고, 2006년과 2007년에 해외 자원봉사에 인솔교사로 참여하고, 2010년까지 외국에 계속 다니면서 학생들을 인솔해 방학 중 해외 자원 단기봉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나 세계화로 인해 저개발 국가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는지 조금 객관적으로 보았던 것 같은데 아마 이것이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저의 첫 의식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이런 활동을 하면서 보니 저개발국, 특히 제가 주로 방문한 아시아 지역의 선생님들이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기보다 그냥 방치한다든지, 교사로서의 무력감에 빠져 있다든지.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보다 교사를 그저 자신의 생활을 위한 하나의 수입원이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생활을 위한 수단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학교에 오고 있는데도 교사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직접 보기도 하고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국가들이 가진 개발의 문제를 선생님들을 통해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지요.

저는 학생들을 인솔해서 해외 봉사를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이런 인식이 생기면서 학생들의 해외 봉사도 중요하지만, 그 국가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그 곳의 교사들이 새로워지고 변혁하는 출발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누가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지요. 많은 개발 관련 기구, NGO 등이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다른 나라의 선생님들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교사, 아시아 교육공동체의 주체로 서다

제가 2010년에 인도를 다녀왔어요. 당시 인도의 오지를 방문했는데, 운영이 매우 잘 되고 있는 산 속 학교에 가 볼 기회가 있었어요. 알고 보니 인도의

한 교육NGO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NGO의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학교에 와서 상황에 대해 듣고, 선생님들이 수업을 잘 하시는지도 확인하고, 학교의 필요에 따라 텃밭이나 교재, 그림 등도 제공해주며 꾸준히 지원을 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걸 보면서 학교 현장을 잘 아는 것이 교육 개발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죠. 동시에 우리 교사들은 학교와 교실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니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으면 정말 학교라는 현장에 잘 맞는 활동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2010년 3월에 유네스코에 계신 선생님들, 대학에 계신 분들, 그리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이런 일들을 함께 해 보자는 취지의 교육개발 NGO인 '세계시민교육연구소'를 만들게 되었어요. 저희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점에 둔 것은 '수평적 관계'에 기반한 파트너십이에요. 지역 간의 파트너십도 중요하고 국가 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국제 사회에서 교육의 주체로서 교사들이 평등한 위치에서 형성하는 것은 교육 개발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의미에서 저희는 자원봉사라는 용어 대신 자원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자원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물질적 자원으로서의 의미, 스스로 무언가를 한다는 의미, 또한 정신적 자원이란 의미죠. 이 세 가지를 교사 스스로가 자신의 역량 속에 잘 녹여 아시아 지역의 선생님들과 함께 하자는 생각으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실천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주요 활동 중 하나가 네팔과 라오스에서의 국제 자원 활동인데요. 우리 한국 선생님들이 네팔과 라오스에 가서 그 곳의 선생님들과 공동 워크숍도 하고, 수업도 같이 하면서 10박 11일 정도 활동을 진행해요. 저희가 가진 비전 중 하나가 변화를 꿈꾸는 교사들(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의 도전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우리 모두의 교육의 발전을 위해 국가의 경계를 넘어 아시아가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흔히 아시아 저개발국들을 보며 경제·교육적으로 낙후되었다고 쉽게 말하곤 하는데, 저는 그 국가들이 가진 문제 자체보다는 그 국가들이 문제들에 대응할 기회를 상실한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동안 아시아는 한중일 등 동아시아 중심의 발전이 두드러진 편향적 현상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아시아 전체 지역의 교육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상생의 원리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저희의 꿈이기도 하지요. 이를 위해서는 교사가 중심이 되고, 교사들과 함께 학생은 물론 지역 사회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네팔이나 라오스에 가서 현지 선생님들과 공동 워크숍 및 수업을 할 때 중점을 두는 부분은 현지 선생님들이 교사로서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 교과목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 향상뿐 아니라 교육적 마인드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요.

이런 모든 활동들을 네팔, 라오스 선생님들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미리 네팔어, 그리고 라오스어로 된 교과별



수업 지도안을 만들어가고 이를 바탕으로 현지 선생님들과 회의를 진행해요. 이 내용이 그 곳의 상황이나 교육과정에 맞는 것인지 확인하고 수정한 다음 완성된 지도안으로 함께 수업을 하지요. 저희는 이것을 협동 학습이라고 부르는데 한국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면 현지 선생님들이 이 수업을 지원해주고, 반대로 현지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면 한국 선생님들이 지원을 해주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을 진행합니다. 수업이 끝나면 수업 내용과 진행 등에 대한 평가회를 다 같이 하고요. 이 시간에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어떤 부분이 개선이 필요할지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의견을 나눕니다. 이 과정을 통해 현지 선생님들이 '나도 수업을 잘 하는구나'라는 자신감을 많이 얻으신 것 같아요. 스스로 수업을 평가하고,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보는 과정을 통해 수업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질 뿐 만 아니라 교사로서 자기 자신이 자랑스럽다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하고요. 이런 것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과는 우리만 애쓴 것이 아니라 현지 선생님들이 직접 일구어낸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함께 함으로써 그 과정이 힘차게 진행되고 좀 더 풍성해진 것은 저희에게도 매우 보람된 성과이기도 하고요 (웃음). 또 지역 사회에서도 이런 수업 활동들, 저희와 함께 하는 워크숍 등을 몇 년간 보시면서 학교와 지역 선생님들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아졌다고 해요.

또 저희가 몇 년 동안 꾸준히 네팔에 가다 보니 서서히 느끼는 변화의 감동이 있어요. 처음 네팔 룸비니의 학교에 갔을 때는 저희가 도착해도 그 분

들이 큰 관심이 없었어요. 밤에 학교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안 나오셔서 저희끼리 짐 풀고 준비했어요. 그런데 다음 해에는 밤 12시에 선생님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같이 도와주시고, 그 다음 해에는 저희가 산 속 학교에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직접 톱을 가지고 와서 나뭇가지를 잘라주더라고요. 이것 외에도 학교 선생님들이 지역 사람들에게도 당당해진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아무래도 교사로서 자부심과 자신감이 향상되니까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나 지역에서 교사로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인식이 강해졌는데, 실제로 첫 해와 달리 저희가 가서 행사나 활동을 할 때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벼룩시장을 기획할 때도, 직접 학부모들과 지역 사회랑 조율해서 내용도 짜고 운영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런 자신감을 보는 게 참 좋았어요. 물론 학생들과도 관계가 많이 가까워지고요. 한국 선생님들이 오셔서 네팔 선생님들이랑 같이 수업과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 학생들이 네팔 선생님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와, 우리 선생님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웃음). 두 국가의 선생님들이 같이 성장하고, 함께 배우는 이런 과정들이 어찌보면 가장 소중한 경험이지요.

교사가 만드는 국제 교육 네트워크: 함께 하기에 아름다운 동행

사실 교사가 이런 교육 NGO를 만든다든지, 국제 교육 네트워크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네팔과의 프로그램은 엄홍길 재단과 MOU를 맺고 있어요. 현재 저희 세계시민교육연구



소의 고문을 맡고 계시기도 한 엄홍길 선생님께서 처음 시작 단계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라오스는 한국-라오스 친선협회를 통해 저희 선생님 한 분이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몽골과도 MOU를 준비 중인데 재한 몽골학교와 인연을 맺기 시작하며 학교를 통해 몽골과의 프로그램도 준비 중입니다. 이렇듯 다양한 기관과 단체, NGO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함께 일하고 있어요. 저희는 교사가 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개발 NGO이지만 교육공동체에게 모두문이 열려 있어요.

또 교사 중심의 공동체이지만, 학생들, 학부모님들도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일반 NGO분들도 함께 하고 계세요. 네팔에 고등학생들이 같이 가고 있는데요, 사제동행 네팔 교육 자원 활동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학생들이 네팔에 같이 가서 저희처럼 교사로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요. 주로 유아부나 초등 1~2학년들을 우리 학생들이 맡게 되는데요, 직접 교사로서 교육내용도 준비하고 실행도 하는 거죠. 운영상 많은 수의 학생들이 함께 가긴 어렵고, 매번 5명에서 7명 정도 같이 가고 있어요. 이 학생들이 교사로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만들고, 또 현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매일 프로그램이 끝나면 평가회에 '교사'의 자격으로 참여하고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참가하는 학생들이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선 교사로서 활동하게 되니까 교육이 무엇인지, 학교는 왜 필요한지, 학교에서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실제 교사가 되어 이러한 것들을 직접 경험하다 보니 교육이나 학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고 특히 '선생

님'이란 대상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또 현지에서 선생님, 학생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다 보니 우리와 다른, 소위 저개발국이라는 곳의 사람들에게는 본인이 어떤 자세로 다가가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녀온 학생들 중에 많은 학생들이 진로를 확실하게 정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가치관이 분명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학생들을 인솔해서 자원봉사를 많이 다녀봤잖아요. 학생들이 봉사활동으로 외국에 나가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게 돼요. 그런데 대개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평등한 사회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까지는 하지 못하는 것 같더군요. 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할 기회도 적고요. 그런데 저희랑 같이 현지에 가면 교육이 왜 필요한지, 이런 활동들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또 개발이란 문제에 있어 교육이 어떤 방향과 체제를 갖추어야 효과적인지 선생님들이랑 같이 고민해보니까 좀 더 생각과 경험을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학생들이 '교사'로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호칭부터 참여하는 학생들을 저희와 똑같이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게 이 학생들의 역할이니까요. 선생님들이 자기들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니 학생들이 굉장히 새롭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도 학생들이 평등의 가치나 수평적 관계형성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세계시민교육연구소(Educators for Global Citizenship)

세계시민교육연구소는 교사들이 국제이해와 지속 가능발전을 기반으로 하여 세계시민의식을 키우고 실현함으로써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세계 교육의 발전을 위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사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 전문가들이 세계 시민성을 함께 배우고 나누며 실천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교육개발NGO입니다.

네팔과 라오스 등 현지에 가는 프로그램 외에도 매달 3번째 토요일에 자유편 연수를 진행하고, 상반기와 하반기에는 '도시탐사' 라는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도시라는 곳이 삶의 원형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라는 데 착안하여 우리의 삶이 실현되는 공간에서 세계시민에 대해 생각해보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6월과 11월에는 세계시민교육 포럼을 개최해 학교 현장에서의 세계시민교육 현황이나 실천 사례를 발표하고, 이듬해 1월과 2월 네팔과 라오스로 해외 교육 자원활동을 갑니다. 그 외에도 국내에 있는 몽골 학생을 위한 학교인 재한 몽골학교에서 몽골 선생님들을 위한 교육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네팔에 다녀오신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서울교원봉사단을 조직, 동부시립요양센터에서 교육가족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봉사과 자원활동, 국내 활동과 국제 활동이 잘 어우러져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을 함께 경험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세계시민교육: 어떻게, 무엇을?

우리 삶의 문제에서 출발하기

많은 선생님들이 세계시민교육을 좀 무겁게 느끼는 것 같아요.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용어 자체도 너무 무겁게 다가간 것 같고, 사실 세계시민교육을 교육의 이념으로 생각하면 학교에 들어와야 하는 하나의 교육 방법 또는 목표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아이들과 해 보니까 우리 삶의 문제라는 것을 느꼈어요. 물론 배경이나 이론은 있지요. 그런데 저는 선생님들이 세계시민교육을 커리큘럼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물을 아껴 쓰는 것, 전기를 아껴 쓰는 것, 오염에 대해 생각하는 것, 도시의 준법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 상생하기 위한 인간관계 등은 우리의 일상생활이잖아요. 따라서 세계시민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활의식, 가치관'이라는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은 이미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교과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과

학 선생님이시면 에너지에 대한 생각, 환경에 대한 생각, 윤리/도덕 선생님이시면 교과 내의 규칙, 질서, 평등, 정의의 부분들이요. 사실 도덕이 세계시민의식의 출발점이잖아요. 평등과 정의가 세계시민교육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교과에 계속 나오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실천으로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교과에서 해 오셨던 내용들을 학생들과 소통하고 교류하고 나눠주시는 방향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시면 좋겠어요. 단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생각했을 때, 세계화라고 하는 울타리를 우리 교과에 투영시켜서 과학으로 보는 관점, 윤리/도덕적 측면에서 보는 관점 등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바람직한 세계화란 무엇일지,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를 생각했을 때 이 세계화의 영향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훌륭한 세계시민교육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교과와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세계시민교육: 교과에서 풀어내기

저의 예를 들자면, 제가 국어 교사잖아요. 저는 매달 초 국어의 네 가지 영역(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을 가지고 세계시민교육을 국어 교과 속에서 체계화하는 작업을 해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매달 주제 선정을 할 때 글로벌 이슈데이를 활용할 수 있는데, 3월의 경우 여성의 날이 있어요. 그럼 이 '여성의 날'로 세계시민교육 수업을 국어 교과에서 할 수 있어요. 5시간 정

도, 5차시 정도를 먼저 계획해요. 그럼 1차시에는 성에 대해 일반화된 생각·관념 등을 보여주거나 여성에 대한 문제들, 성 불평등 등에 관한 읽을거리나 동영상 등을 소개해요. 이를 통해 ‘여성에 대한 문제가 우리 안에 아직 많이 있구나’, ‘미처 몰랐는데 심각하구나’ 또는 ‘많이 개선되어 왔구나’ 하는 것 등을 현실적 상황에서 학생들이 한번 보는 거죠. 다음 2차시에는 팀을 조직해서 수다떨기를 해요. 자기가 경험했던 여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우리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서, 혹은 기사에서 보았던 여성/성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 등을 팀에서 충분히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수다떨기를 하고 나면 이 여러 문제들 중에서 주제를 하나 잡아서 좀 더 깊이 다루는 ‘주제 선정’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2차시입니다.

3차시에는 전 시간에 선정한 주제를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여성의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주제를 가지고 상대방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모의극, 인터뷰 등 다양한 활동들을 생각해 내어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4차시에는 준비한 활동들을 발표하는 거예요. 다음 5차시에는 자신의 팀과 다른 팀들이 발표한 내용 등을 종합해서 자신만의 칼럼을 쓰도록 합니다.

이 5회의 수업을 들여다보면, 1차시에 읽기/보기/듣기가 들어가고, 2차시에 말하기/듣기, 3차시에는 창의적 사고/협동, 4차시에는 말하기/듣기, 그리고 5차시에 쓰기가 들어가요. 이렇게 보면 국어의 4가지 영역이 골고루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활동이 끝나면 학생들 각자 이 전체 5차시 활동에 대

한 느낌, 경험, 피드백을 공유해요. 각자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무엇을 깨달았는지, 어떤 질문이 기억에 남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활동에 대해서도 평가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여성’이라는 하나의 주제(아이템)를 가지고 5차시의 언어 영역, 국어 수업이 끝나게 됩니다. 이 수업을 해 보면 학생들이 ‘여성’이라는 주제 하에서 여성의 평등, 권리, 평화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법이나 조건, 대안 등에 대해 스스로 다양하게 고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국어는 영역이 넓어서 세계시민교육을 교과에서 가르친다고 하면 시나 소설 등 문학작품 안에서도 연결시킬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과학 같은 교과는 단원마다 주제가 명확하게 나오니까 어떤 면에서는 세계시민교육에서 다루는 세부 주제들과 밀접하게 연결시켜 수업 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이야기에서 출발하세요

앞서 말씀 드린 ‘여성’을 주제로 한 세계시민교육 수업을 보면, 2차시에 수다떨기가 있어요. 이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는 1차시에서 읽고, 보고,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 또는 주변에서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읽을거리나 동영상 자료 등을 통해 접한 주제들을 주변의 이야기로 풀다 보면 학생들이 ‘어, 이런 문제들이 나와 내 친구 주변에

서 일어나고 있고, 기사를 보니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요. 학생들이 신나게 수다떨기를 하다 보면 자기 집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자기 경험도 자연스럽게 나올 때가 많아요. 어떤 경우는 딸로서 경험한 불평등이 생각나 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시간은 생각과 경험이 결합되고, 자유롭게 표현하고, 서로 공감하는 과정이 일어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렇듯 자기 이야기에서 출발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세계시민교육 워크숍이나 연수를 할 때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세계시민교육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교실에서 풀어낼지에 대해 고민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세계시민교육에서 다루는 평화와 정의, 갈등, 보편적 가치 등의 개념들이 사실은 우리 이야기 속에, 또 아이들 삶의 이야기 속에 다 있어요. 성적 때문에 차별 받았던 경험, 형제·자매 간의 갈등, 삶에서 겪는 다양한 부정의의 경험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 해 겪었던 불편함과 어려움 등. 학생들이 겪는 이런 경험들이 다 평화, 인권, 정의 등의 문제들과 결부되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삶의 문제와 경험들을 아이들이 생각해보도록 해 주시고, 또 이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하고 공감하도록 해 주시면 학생들이 스스로 사회·국제적 문제들, 전지구적 해결과제들 등과 자신의 삶의 문제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개념들을 그냥 개념으로, 지식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면 학생들은 이것을 삶의 문제, 나의 문

제라고 연결시키지 못 하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이 세계시민교육을 경험하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를 공유하는 것을 예로 들어보고 싶어요. 선생님들이 네팔에 다녀오시면 선생님의 경험을 아이들과 나누고 싶어해 네팔에서 수업하신 내용들, 사진, 영상 등을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선생님이 직접 경험한 그 곳의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들려주시면 학생들에게 그 마음이 잘 전달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스스로의 경험이다 보니 자신 있게, 진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국경 밖의 나라, 그 곳의 사람들, 교육, 함께 가야 하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학생들도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교과서 안에 머물러 있는 지식이 아닌 선생님 통해 생생하게 전달되는 '삶'의 이야기로 이런 문제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 국가 간의 관계나 세계화의 문제, 국제적 협력의 부분까지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것이고요.

한 경우는 선생님이 네팔 경험을 나눠주시고 나니까 학생들이 네팔의 학생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서 우유팩으로 만든 그림 딱지를 생각해냈지요. 자기들의 딱지치기 놀이를 네팔 친구들에게 전해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유팩을 모아 예쁘게 딱지를 만들고 무늬를 그려서 선생님에게 전달해 달라고 했어요. 비싸고 좋은 물건을 사서 주거나 돈으로 기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팔의 아이들을 진짜 친구로 인식하여 친구로서 무언가를 나누고 싶고, 교류하고 싶다는 마음을 그림딱

지로 전달한 것이거든요. 선생님이 다음에 이걸 전달해주고, 네팔 아이들이 즐겁게 딱지를 가지고 노는 모습을 영상으로,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 주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몰라요.

이처럼 선생님들이 생생한 경험을 가지고 이것을 학생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로 전달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나누고, 직·간접적으로 학생들이 그 과정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은 파급 효과도 매우 크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먼저 세계시민교육을 경험하고, 그 상황에서 활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앞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위해 필요한 것은?

세계시민교육이 일관성 있게 학교 현장에서 편안하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하려면 제도적인 밑받침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제도적 밑받침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교과 내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좋은 자료를 개발하고 공유하는 것, 세계시민교육을 잘 배울 수 있는 기관을 소개해주는 것, 좋은 내용의 교재를 잘 개발해서 학교에 소개해주는 것, 또는 세계시민교육 실천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주는 것 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선생님들이 이론과 더불어 직접 실천해 볼 수 있는 현장 기반의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기회들을 많이 열어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할 때 예산이나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면 더 많은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접하고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전하고 싶어했어요. 아이들이 국경을 넘어 친구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정말 우정에 기반한 순수한 교류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을 통해 아이들이 함께 세계시민적 경험에 동참하게 되는 한 예가 될 수 있겠죠.

저는 세계시민교육이 진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래를 가능하게 해 주기 때문이에요. 미래를 가능하게 한다는 말의 뜻은 창조적인 정신도 있어야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탐구도 있어야 하고, 협력도 있어야 하며 또 서로가 서로를 끈끈하게 잡아 끄는 네트워크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세계시민교육이 앞으로의 전도를 만들어 내는 초석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야말로 미래를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서울의 신수 중학교 학생들이 네팔 학생들에게 쓴 편지 모음이에요. 선생님이 다녀오신 네팔에 대해 배우고, 이를 통해 세계시민교육을 배운 학생들이 네팔의 학생들에게 편지를 써서 선생님을 통해 전달했어요. 그럼 네팔 학생들이 답장을 써서 선생님을 통해 한국 학생들에게 보내요. 아이들이 서로 편지를 받으면 너무 너무 좋아해요. 그럼 또 신이 나서 답장을 쓰고, 관심거리도 나누고요. 지난 번에 네팔에 지진이 났을 때는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해 주고, 희망을



세계시민교육이란 일상에서 가치 찾기

조성준 선생님은 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사(대전, 2015)로서 대전복수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세계시민교육을 '일상생활에서 가치 찾기'라고 말해요. 선생님은 처음 교사로 발령받는 날 당시 교장선생님이시던 아버지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그 편지에는 '세간에 교사는 많고 학생은 많으나 진정한 스승은 없고 제자는 없다는 말이 맞다. 단 한 명의 제자라도 포기하면 안 된다. 어렵고 힘든 제자에게 더 관심을 가져라'라고 써어 있었죠. 선생님께서 교사 생활을 하며 늘 마음에 새기는 말이죠. 그렇지만, 아이들의 생각과 행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은 믿고 기다려 주면, 아이들 스스로 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1 나에게 세계시민교육이란?

동아리와 학교 교육과정,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저는 학교에서 다양한 세계시민교육 활동을 해 오고 있는데요. 먼저 저희 학교가 유네스코 학교이다 보니 유네스코 동아리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고,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도 수업과 연계해 가르치며 지역 기관들과도 연계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유네스코 동아리의 경우 2014년부터 함께 하고 있는데, 이 동아리가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동아리예요. 지역 내 외국인도 만나고, 학교 내외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보니 아이들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동아리 활동도 그렇고 제가 아이들이랑 활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이어서 언제 이걸 다 하는지 질문을 많이 받아요. 사실 이런 활동이나 수업을 거창하게 하려면 못 할 것 같아요. 저는 평범한 일상 생활, 매일의 학교 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활동하고 있어요. 세계시민이라는 것은 먼저 긍정적인 가치관도 있어야 하

고 아이들이 자신의 어떤 자화상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하면서-특히 고등학교이니까- 힘들고 지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아이들이 어떤 가치로운 것을 하나라도 발견해서 이야기해보도록 노력해요. 아이들이 자신의 일상 생활에서 가치들을 발견하면 매우 행복해하고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동아리 활동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많은 활동들을 하지만 그 활동들 자체보다는 동아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선생님들에게도 인정받고 격려받고, 그러면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한다는 것이 좋은 거거든요. 자신의 삶이 충만해져야 주변의 사람도 돌아볼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구체적 행위로 봉사활동도 하게 되고 나눔 행사에도 참여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활동을 하는지, 수업에서 어떤 가치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인지하는지,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한마디로 저에게 세계시민교육이란 '일상 생활 속의 가치 찾기'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아리 활동을 삶의 현장으로

제가 유네스코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동아리 차원을 넘어서 학교 차원의 활동이 많아요. 2015년 한 해 동안 외국인초청 스포츠 활동, 국제교류활동, 국제행사 참가, 포스터전시회 참가, 세계시민교육 캠페인, 진로체험탐방, 국제자선바자회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어요. 세

계시민교육의 주제별 활동(인권, 환경을 주제로 한 영어 UCC만들기, 에너지 절약 캠페인, 세계시민 UCC 제작, 모의 유네스코총회 개최, 문화다양성 공연 등)도 다양하게 하는 편이고 지역 내 외국인 관련 단체들(예: 대전국제교류센터)과 연계해서 외국인대상 봉사 혹은 교류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죠. 외국인들과의 만남이 많은 동아리이다 보니 저희 학생들은 영어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 외 중국어나 태국어 등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외국인 지역주민들이랑 같이 배구경기도 보러 가고, 지역 내 외국인 대상 한글봉사교실에도 참여해요. 또 저희 학교에 독일과 핀란드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학생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과 같이 재미있는 행사도 스스로 기획해서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국제 교류 경험을 쌓고 있죠. 우리 동아리가 진로와 연계해 운영되다 보니 국제기관에서 일하고 싶은 아이들, NGO 등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싶은 아이들 등 주제와 분야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이 모이게 돼요. 그러다 보니 동아리 활동도 교사가 다 짜고 아이들이 따라오는 것이 아닌, 아이들끼리 아이디어를 내고, 작은 활동들부터 시작해 계속해서 가지치기를 해 나가는 형식으로 진행된 것 같아요.

저희는 과정 상에서 참 즐거워요. 작은 활동들이 모이고, 다음 활동으로 연계되고, 또 새로운 활동으로 연결되고 하는 일들이 쌓이죠. 나중에 보면 꽤 많은 일들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결과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과정 과정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해갔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이걸 친구들과 함께 실현해나가는 경

힘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이면지를 활용해서 연습장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기획했어요. 환경, 재활용, 적극적 문제 해결, 대안적 방안 제시 등의 활동을 이 프로젝트를 통해 생각하고 실천해 본 것이지요. 이런 활동들은 아이들이 외부에서 경험한 뒤 우리 학교에서도 해 보면 좋겠다고 제안해서 아이들이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스스로 의미 있는 활동을 찾아서 했다는 경험은 참 소중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은 자신들이 세계시민교육을 선도해가는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해요. 이런 자발성을 보면 뭐라도 하나 더 해 주고 싶지요.

아이들과의 활동은 교직 생활의 원동력

제가 아이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니까 사실 주말 시간도 많이 쓰고, 제 개인적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편이에요. 진행 과정이 복잡하기도 하고 일이 많을 때도 있으니 물론 힘들 때도 있지요. 그런데 저는 이런 활동들이 제 교직 생활을 지탱해주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고등학교에 있으니 그간 입시지도를 많이 했거든요. 고3 담임도 계속 하면서 아이들 대학을 잘 보내기 위해 일을 많이 했어요. 물론 아이들이 대학에 잘 가고 그러면 보람은 있지만 사실 좀 기계적으로 일한 부분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면서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유네스코 동아리 활동을 아이들 진로와 적성에 연계해서 하다 보니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 했던 기쁨과 보람을 정말 많이 느껴요. 아



이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자기 길을 확인하고, 찾아가고, 관심 있는 분야에서 봉사도 하며 활동을 하다 보니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교사로서 어떤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 그게 정말 좋더라고요. 제 교직 생활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까지 말할 수 있어요. 성과 위주의 교육에서 오는 보람이 전부가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꾸려가는 경험을 하다 보니 아이들과의 관계도 확연히 달라지고 제 수업도 달라지더라고요. 교육관도 변화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전에는 동아리 활동도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정말 교사로서 새로운 과

2

세계시민교육의 가능성 찾기

제를 받은 느낌으로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학교 생활의 큰 원동력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 한 달에도 몇 번씩 아이들 데리고 외부에 나가 활동하고 참여하고 하니까 다들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진짜 제가 좋아서 하고 있어요. 이런 기쁨을 다른 선생님들과도 많이 나누고 싶어요.

세계시민교육: 내용뿐 아니라 방법 또한 고민하기

흔히 세계시민교육은 글로벌한 내용, 무언가 좀 큰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저는 '평범한 일상 생활 속 가치 찾기'라고 생각해서 이 틀 안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세계시민교육의 주제나 내용에 대한 것을 배우고 활동하는 것도 물론 좋은 실천이지만, 저는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 학생들 끼리의 관계, 수업을 끝어가는 방식이나 학생과 소통하는 것, 이런 것 역시 중요한 세계시민교육의 요소라고 생각해요. 수업시간에도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하고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방법으로 나누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동아리 활동에서는 아이들이 중심이 되어 기획하고 주도하는 활동을 교사가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아이들의 생각과 시각이 바뀌면 그냥 흘러 보낼 수 있는 일상의 시간과 사건이 재해석되고 가치 있게 보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이 기반이 되어야 세계시민

교육에서 말하는 가치와 방향성이 아이들 삶에 자리잡고 의미 있게 실현될 수 있거든요.

제가 수업을 할 때 ‘여백이 있는 수업, 행복함을 찾는 수업’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해요.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입시 위주로 수업을 하던 때에는 항상 교사 위주로 수업시간 50분을 다 채우자고 생각했어요. 수능을 위주로 중요한 내용을 다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해 늘 수업이 바빴지요. 그런데 세계 시민교육을 만나면서 제가 수업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매 수업마다 항상 세 개 정도의 활동을 넣어요. 활동을 하게 되면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고, 아이들이 자기들을 표현하게 돼요. 이런 수업을 매번 하다 보니 어느새 자료가 상당히 많이 쌓였어요. 이렇게 쌓인 자료들을 다른 수업에서도 활용하고, 후배 선생님들과도 공유하고, 연구회 선생님들과도 나눕니다. 이렇게 활동 중심의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고 있어요. 활동이 많으니 생각해볼 수 있고 재미있어서 좋다는 이야기를 자주 해요. 사실 고등학교 수업이 진도도 많이 나가야 하고 할 게 상당히 많죠. 그래서 여백이 있는 수업을 하려면 어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난초 그림을 생각해보면, 도화지 중심에 난초가 있고 나머지 부분이 여백으로 비어 있잖아요. 그렇기에 난초가 아름답게 돋보이는 것이고요. 이처럼 여백이 있는 수업을 위해서는 수업 시나리오를 잘 짜야 하더라고요. 핵심적으로 가르쳐야 할 내용을 먼저 정하고 그 외의 시간을 활동으로 꾸며 이 핵심 내용이 더 효과적으로 아이들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니까

요. 아이들이 이렇게 활동을 통해 교과 내용을 직접 경험하게 되면 그 경험은 훨씬 오래 지속될 거라고 생각해요. 교사로서는 어떻게 보면 준비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작업이지만, 저는 이 여백이 있는 수업을 꼭 지속해나가려고 해요. 아까 말씀 드렸듯 이렇게 활동 중심의 수업을 하니 수업 자료가 정말 많이 누적되거든요. 이것들이 나중에 좋은 수업 교재가 돼요. 한 번에 하려면 불가능하지만, 매일 매일 하니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죠.

저는 세계시민교육을 일상 속 가치 찾기를 통한 행복한 삶의 추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사에게 교수학습 활동, 학교의 생활, 아이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가치 찾기의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어교사로서 수업할 때 작은 것 하나하나도 이런 연장선 상에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어 단어를 아이들이 많이 외우잖아요. 거의 쓰고 외우고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에게 제안하는 것은 자기에게 가치 있는 단어를 세 개 골라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다음 왜 그 단어를 골랐는지 글쓰기를 해 보라고 해요. 단순한 활동인데도 아이들이 생각하게 되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 안에서 가치를 발견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영어 단어도 더 잘 외우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과정이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 삶 속에서, 자기 주변에서, 자기 지역에서, 사회에서, 나아가 국가와 전세계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해 내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믿습니다. 스스로 발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가치들을 실현할 수 있는 활동-그것이 나눔이든, 어떤 참여든 봉사든-을 하게 될 거라 생각해

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활동과 수업을 통해 사고와 행동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사람들로 성장해갔으면 좋겠어요.

믿고, 기다리고, 함께 기뻐하며 나아가기

제가 아이들의 다양한 활동 모습을 보면서 감동 받을 때가 많아요. 지난 10월 말에 대전국제자선바자회에서 동아시아 체험부스를 운영했어요. 그 날 날씨가 굉장히 추워서 아이들 걱정이 됐는데, 아이들이 진짜 몸을 안 사리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준비도 정말 열심히 해서 기특해 했는데, 추운 날씨에 야외에서 성실하게 부스 운영을 하는 걸 보니 제가 뭐라도 막 더 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이 아이들의 실천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최선을 다해 하는 것 말이에요.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고 많이 배우죠. 이럴 때 정말 아이들은 기다려주고 기대해주고 믿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지요. 아무래도 아이들이다 보니 교사의 가이드나 개입이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특히 방향 설정에 있어서요. 이렇게 최소한으로 개입하고 아이들을 믿고 기다려주면,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다가 방향을 맞춰서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기 책임을 다 하거든요. 그런 걸 확인할 때 참 감사하죠.

저희 학교 지역이 가정경제환경이 아주 뛰어난 곳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 사교육에 의존하는 부분이 좀 적는데 아마 이런 부분이 교사와 학생의

신뢰 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교사를 잘 믿고 따르는 편이에요. 저희 아이들 중에는 어떤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경험의 폭이 좁은 아이들도 많아요.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성적으로 인정받을 기회가 적는데, 이런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잠재적 역량을 발견하고 인정받게 되면서 단순히 그 활동뿐 아니라 삶의 경험의 폭이 넓어져요. 실제로 저희 학생 중 한 명은 학업 성적이 낮아서 학교에서 인정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사진 편집기술 등이 뛰어나단 걸 알게 되고 계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에서 하는 사진 교실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고, 터키까지 다녀오게 된 거예요. 이 아이에게 단순히 행사 참여가 아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몇 번이나 담당 교사인 제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지……. 이 일을 계기로 아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신감도 생기고, 도전 의식도 생기고, 적극적으로 변하고 정말 좋은 경험이지요.

아이들이랑 이렇게 즐겁고 보람 있는 활동을 지속해가려면 교사들의 감성, 감수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얼굴 표정으로, 말투로 표현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미세한 것들을 찾아내고 감성을 읽어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의 감성을 체크해서 그 때 그 때 다독이고 관심을 주고, 먼저 말을 걸어주고, 계속 어떤 신호를 아이에게 보내는 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아이들이 느끼더라고요. 이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고 신뢰한다는 것을 아는 거죠. 인문계 고등학교에

서 성적이 낮은 아이들은 아무래도 관심 받을 기회가 적어요. 가능하면 이런 아이들에게 시간을 내서 교사랑 같이 할 기회를 자주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특별하게 받아들이지요.

제가 처음 교사로 발령받는 날 당시 교장선생님이시던 아버지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았어요. ‘세간에 교사는 많고 학생은 많으나 진정한 스승은 없고 제자는 없다는 말이 맞다. 단 한 명의 제자라도 포기하면 안 된다. 어렵고 힘든 제자에게 더 관심을 가져라’라고 쓰셨는데, 제가 늘 마음에 새겨 놓고 있어요. 가끔 후배 선생님들이랑 얘기할 때 이 편지 이야기를 같이 많이 해요. 항상 이것 저것 활동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 궁금하고 의아해하는 분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제 활동의 원인이고 원천이라는 얘기를 같이 하죠.

저는 아이들에게 제가 교사라서 정말 좋고 행복하다고 자주 이야기해요. 교사가 제 꿈이었는데, 그걸 이루어서 너희들 앞에 서게 된 게 행복하다고 말하면 고등학교 남자애들도 눈이 반짝 해요. “선생님 꿈을 이뤄서 행복하시겠어요” 하면서요. 저는 유네스코에서 말하듯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바뀌는 것이 참 힘들죠. 그래서 아이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좋은 방향, 올바른 방향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자극과 경험의 기회를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야 졸업하고 어른이 되어서도 꾸준하게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가치관을 지니고 살 수 있을 테니까요.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계속 이런 고민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일상 속 가치 찾기’의 노력과 활동을 지속해 나가려고 해요.



“제가 아이들과 세계시민교육 활동을 하는 것은 내적 보상이 정말 많아요. 교사로서 전문성도 기를 수 있고요.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간다는 점에서도 좋고, 세계시민교육, 유네스코를 통해 새롭게 하게 된 게 정말 많아요. 앞으로 세계시민교육 교사연구회 활동도 열심히 해 보려고 해요. 세계시민교육이 별개의 어떤 것이 아니라 곧 교수학습방법, 학생 진로지도에 대한 고민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제 전문성도 덩달아 기를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아이들과 가치 있는 일들을 찾아가고 참여한다는 것이 정말 기쁘고요. 이 기쁨을 알면 아마 선생님들께서 많이 하고 싶어하실 거예요. 한 번 경험하면 꼭 좋아서 하게 되거든요.^^”

세계시민교육, 학교와 만나다

선생님들의 세계시민교육 이야기 나눔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16

ISBN 979-11-956142-4-0

2016년 1월 27일 발행

인터뷰에 참여하신 분들

김동혁 (광주 문정여고), 광병남 (충북 영동초등학교)

임영아 (울산 강남고등학교), 이홍순 (인천 청일초등학교)

박범철 (서울 경문고등학교), 한상희 (제주 서귀중앙여자중학교)

김민경 (인천 청량초등학교), 최재화 (경기 신천고등학교)

김양모 (안동 동부초등학교), 정애경 (서울 국제고등학교)

조성준 (대전 복수고등학교)

기획및 편집 이지홍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교육연수2팀장)

정유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교육연수2팀 전문관)

펴낸곳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120 (구로동)

전화 02-774-3956

팩스 02-774-3957

디자인및인쇄 도서출판 기역+친친북스

본 책자에서 표현된 아이디어 및 견해는 저자의 것으로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의견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밝힙니다.